朝鮮日報

夕刊 十六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蔣介石氏, 薛氏에게 廣西進入을命令

中央軍先鋒續續陽城에進出

廣西軍은事前에撤退

【上海十五日發同盟】蔣介石氏는 目下 貴陽에잇는 貴州綏靖主任 薛岳氏에對하야 貴州駐屯中央軍 十七個師中 三個師를 引率하고 廣西로 進入하라고 命令하엿다

【廣東十五日發同盟】廣東軍界의 消息에依하면 衡陽의中央軍先鋒은 廣西軍의退去에乘하야 十四日朝來 陽城에進出하야 衡陽南下하는中인바 永興도 今明中에 占據되리라고觀測되다 그리고 西路의中央軍은 十五日 初陽城外에迫하고 廣西軍은 事前에 泥陽으로부터 撤退하엿다

日本의使嗾視 西南派의行動을

蔣氏와會見後喜多少將談

【上海十五日發同盟】行政院長蔣介石氏와의 會見을 마치고 十四日夜 上海에 歸着한 大使館附官喜多少將은 南京의 會見에 關하야 十五日正午 如左히 말하엿다

今回는 요전 南京訪問時에充分히 뜻을 하지못한 點을蔣介石、張群氏其他要人과 다시 深刻하게 이약이하엿다 會談內容은 發表치안키로 約束하엿스므로 말할수업스나 中國側도 어떠케해서든지 日中兩國의 國交調整을 行하고십다고 焦慮하게 생각하고잇는모양이엇다 蔣介石氏는 西南問題때문에 非常히多忙한모양으로 連日 會議에이은 會議로 거의 寸暇도업다고하엿다 西南問題에 關해서는 國府一同이 非常히 重大視하고잇서서 武力的解決을할는지 或은 政治的 解決이可能할는지 또는 武力的解決을 하더라도 完全히 이것을 할수잇슬는지 이러한點에 關해서는 中央當局自身에서도 全혀 豫測이 서지안는모양이엇다 國府內에는 西南行動으로써 꿋까지 日本使嗾에 依한것이것가티 信憑하고잇는이도 잇스므로 이에 對해서는 내가 日本의 公正한 態度方針을 充分히 말해두엇다 적어도 내말을 들은者는 今後誤解를품고 充分 理解하엿슬줄안다

中國內亂에備해 充分히配置

이든英外相言明

【倫敦十五日發同盟】西南、中央의 對立抗爭을 契機로 中國은 一時 內亂의 渦中에 휩쓸리게 되지안흘가 念慮되드니 이든外相은 十五日 書翰을 下院議員에 配布하야 英國政府는 萬一에備하야 이미 充分한 配備를 完了하엿다는旨를 言明하엿다 書翰要旨는 左와如하다

英國權益의 中心地에 萬一重大事件이 發生할境遇에 備하야 英國政府는 이미 海陸의 警備에 對하야 이미 全面的處理를 完了하엿다 上海에잇서 事態에 備키爲하야 漢口駐屯軍으로부터 警備軍을 臨時增遣할것을 考慮하고 이미 手續을 進行하고잇스며 緊急한境遇 極東艦隊를 何時에나 出動할수잇도록 配布中이다

陸軍에呼應하야 海軍도民間航空助長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提唱하는民間航空助成을 目的하는航空省設置에 關하야海軍에서는 民間航空事業의 擴大發展을 爲하야 何等의 强力統制의 必要를 認定하고잇는만큼 即時陸軍側의 提議에 應하야 目下陸海兩軍關係事務當局에서 銳意具體的試案을考究하기爲하야 여러가지로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同問題에 對한 海軍當局의 見解는 大體로左와如하다

一、日本의 民間航空은 그不利한地理的關係로 發達이遲遲한바잇다 現在此를 米蘇 其他의列强에 比較하면顯著한 懸隔이 잇는것은 事實로 이대로 放置할時에는 日本航空兵力에 相當히 큰 支障을 生할憂慮가 充分이잇다

一、따라 此際 民間航空事業을 擴大發展케하기爲하야 積極的으로 그指導及 助成을 行할것

一、그리고 航空技術의 發展向上 航空機工業의 進步에資케하기爲하야 現在民間에 잇는 各種航空技術硏究所와 如한것은 此를 合同하야 硏究의連絡統一을 圖하는同時에 强力한 航空統制保護를 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그統制를 함에 當하여는 特히 陸海軍의 空軍과의間에 摩擦 乃至 對立과如한 事態가 發生치안토록 充分 留意할것은 勿論 陸、海、空、軍의 相異한 特殊性도 充分 考慮하지안으면 안될것이라한다

日濠代表會見結果 情勢好轉?

【캔베라十五日發同盟】村井總領事와 가레드代表와의 會見後濠洲政府側에서는 情勢好轉을 傳하고잇다 今後의 進展에 對해서는 大體 左의觀測을 내리고잇다고 解釋되다

一、村井總領事가 가레드代表와 會見한 結果에 基하야日本政府에 請訓한後 日濠兩國政府間에 通商會談을 續開할는지그 與否를 決定할터인데 明白히 決定되기까지는 아직數日을 要할것이다

一、會談에 續開될는지 그與否가決定되기까지 日本政府는報復的手段實施를 中止할것이다

레옹·불룸氏와民衆戰線派 ─ [illegible] 四十餘年의 鬪爭經歷을가진 레옹·불룸氏가 佛國首相의 地位를 獲得하게되것은 純然히 팟쇼에對立하야 形成된 社會黨、合進社會黨、共產黨의 民衆戰線의 勝利의結果엿다、寫眞은 總選擧의 勝利를 祝하는 民衆戰線大會가 끗난後에 黨의 同志들에게 護衛되여 滿足한거름을 내드듸는 불룸氏(帽子든사람)

地方長官會議

指示事項內容

【東京電話同盟】內政改立의具現化를 地方에徹底케하기爲한 地方長官會議第二日은 十六日午前九時부터 內務省大會議室에서開會 內務省側으로부터 潮內相、[illegible]島 湯澤次官、所付參與官、廣瀨社會局長官、萱場警保、大村地方、岡田土木、飯沼神社、挾間衛生各局長以下 關係各部課長等 內務省首腦部 地方側으로부터 石田警視總監 池田北海道 橫山東京 鈴木京都 安井大阪等 一道四府 四十二縣의 地方長官（大分縣은 瀨上總務部長 知事代理로 出席）그리고 傍聽者로 中島憲兵司令官 近藤朝鮮全羅南道 同黃海道 日下臺灣臺中州各知事等 中央地方을 合하야 約七十餘名出席 劈頭에 潮內相으로부터 廣田內閣의 政綱政策을 基調로한 內政改革 具現을 强調力說하고 別項과如한 訓示를 行하고 끄트로 指示事項에對하야 關係各局長으로부터 說明이 잇슨後 協議에入하야 質疑應答을 거듭하고 正午一旦休憩 午後一時지나 午前에 繼續하야協議를 續行하야 中央과 地方側의 質問應答을 繼續하야 第二日의 會議를 終了하고 夜에는 內相官邸에서열닐 潮內相招待晩餐會에 臨할터이다

▲指示事項

一、都市防護에關한件
一、神職敎養에關한件
一、神社行政振興에關한件
一、選擧肅正運動에關한件
一、市町村에對한 實質的指導에關한件
一、臨時町村財政補給에關한件
一、治安維持에關한件
一、土木事業의施設經營에關한件
一、農村衛生改善에關한件
一、出稼者保護指導에關한件
一、結核豫防의 國民運動振興에關한件
一、癩豫防에關한件
一、醫療普及에關한件
一、麻藥取締에關한件
一、退職積立金及 退職手當法에關한件
一、健康保險의業務改善에關한件
一、救護法施行에關한件
一、地方改善事業에 關한件
一、協和事業에 關한件
一、職業紹介法의改正에關한件
一、鄕倉의 指導監督에關한件

朝鮮農民移住問題로 軍部、總督府協議

統制와指導根本方針解決次

關東軍竹下大佐入京

【京城電話同盟】朝鮮人의 滿洲移民에 關하여는 總督府가 鮮滿拓殖會社로하여금 統制指導에 當케하려하는데 自由移民、移住地域問題에 關하여는 依然總督府及、關東軍、滿洲國間에 根本的未解決點이 殘存되여잇고 鮮滿拓殖會社가 마침내 七月에創立되드라도 今年度中은 新規移民을 行치안코 專혀 旣移住者의 統制指導에 注力할터이나右 根本問題가 殘存되여 그解決은 目下急務로되여잇다 關東軍第三課長竹下大佐 同參謀鹽澤中佐는 來十八日午後一時五十分着 列車로 入京하야 總督府及 朝鮮軍關係參謀와 함께 協議會를 開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滿洲國及軍部側에서는新規移民보담도 自由移民의 統制集團移民이 先決이라하고 또移民地域도依然東邊道、間島地方에 限定할 意向을 堅持하고잇다總督府側은 今年度는 如何튼明年度부터는 大規新規移民에 着手하고 爲先 東邊道를 其地域으로 하고 漸次其範圍를擴大하려함으로各當局者의 會同은 此等 根本的諸案을 再檢討하리라하야 注目되여잇다

佛內相사氏 罷業狀態發表

【巴里十五日發同盟】사랑그로內相은 十五日 佛國各地의 罷業狀態에對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罷業은 各地에서 着着解決되여 中心地方八縣에잇서 罷業人員數는 二十六萬五千人에達하엿다 現在 依然罷業하고잇는것은 巴里市內의 百貨店從業員三萬二千人 其他 合計七萬六千人에 不過하다

西南의要求一蹴코

武力解決에邁進

中央省境에大軍集結

【上海十五日發同盟】中央은 南岳會議에잇서 西南의 要求條件을 一蹴할것은 確定的인바 며욱

一、廣東廣西間의 不一致
一、廣東派內部에잇서 主戰論과 停戰論의 對立
一、廣西軍의 戰意不振과 逃亡兵이 續出하는것
一、湖南何鍵氏 雲南龍雲氏 福建張發奎氏及 舊十九路軍 將領이모다 西南軍에 加擔치안는것

等으로 態度가 明瞭함으로 從來의 妥協方針을 一擲하고 武力으로써 西南二省倂合의 決意를 鞏固히 하고잇다 그리고 一旦占領한 地域을 버리고 後退를繼續하는西南軍 越境部隊中 廣西軍은 約三個師廣東軍은 約一個師로 이에 對抗하는 中央은 湘에도八個師가 集結하여잇고 湖南江西省에 全國各地의 軍團을 續續 集結하는外에 空軍도 南昌 長沙에 各其 集結을 終了하고 中央軍은 바야흐로 蔣介石氏의 命令一下에 西南二省을 向하야 大擧 侵入할수잇도록 態勢를執取하게되엿다

拓相台灣總督默契

【東京電話同盟】進退가注目되여잇는 中川台灣總督은 十五日午前 永田拓相과의 第一次會見에 잇서 臺灣拓殖株式會社社長의人選에對하야 各各腹案을가지고意見을 交換하엿는데 兩者間에는 아즉 完全意見一致되지못하야 今後에도자조 會見하고 會社設立의 根本方針妥協을 行할터인데 拓相의意向은 總督의面目과 威嚴을 尊重하야 臺灣拓殖株式會社社長의人選及 創立根本方針等充分總督의 意向을 取扱하고 然後에 總督의 進退問題를 그집어내일 意向이다 따라 同社社長 創立委員長의 人選은 愼重을 要하고잇는模樣인데 될수잇는대로 速히決定하고 同總督의 勇退問題를 決定할터인데 그順序에對하여는 拓相總督間에 暗默한가운데 諒解가成立된것이라고 觀測된다

敷設兩艦 廿一日仁川入港

鎭海要港部 敷設艦〃嚴島〃〃加島〃兩艦은 十七日午後五時 鎭海를 出港하야 西海岸警備巡航次 巨文島、群山을거처 二十一日正午 仁川에 入港할터이다

政治問題의解決은 當分間待機靜觀

北中을中心으로한經濟援助에爲先注力

外相、川越大使에授訓

【東京電話同盟】川越新駐中大使는 마침내 十六日午前九時 東京驛發 쯔메號로 西下하야 赴任途上에 오르기로 되엿슴으로 有田外相은 出發을압두고 十五日午後四時 外相官邸에 同大使의來訪을 求하고 對中新政策에 關한 訓令을授與하고 經濟援助의具體策 其他의對策에 對하야 約一時間半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그리고 北中情勢의變化、排日氣運의擡頭、西南의 復活等으로 中國의政局은 자못安定을缺하야 實質的으로 日中間의政治問題의解決은 困難한 實情에處하여잇슴으로 新訓令에잇서서도 政治問題에對하여는 時局이 安定될때까지當分間 待機的靜觀主義를 取하리라고 解釋되는바 正當한 經濟援助는 中國의經濟的回復을 助長하고 日中政治關係의 素地를 釀成하는것이라는 見解에基하야 爲先 日本과가장關係가기픈 北中을비롯하야 順次로 中國全土에 及하게하기로 方針을 決定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即陸軍、海軍 外務三省間에서는 리드로스氏等이提唱하는 對中共同援助는 一部政權及 軍閥의私腹을 채울따름 生產的効果가 期待되지안흘뿐더러 政治的安定을 缺하는 中部中國及 南中方面에로의 投資를 中心으로하는것임으로 有田外相은 리드로스氏의 提言을 拒否 하얏는데 眞正으로 生產的目的에 使用되고 또 日滿勢力의 浸潤으로 政治的 安定의 確保가 期待되는 北中을中心으로하는것이라면 對中經濟援助는 何等阻止할것이 아니라는데 意見一致되엿슴으로 川越新大使의 赴任을 待하야 爲先中國을 中心으로한 經濟援助에 進出하려하는것이며 또 經濟援助의 具體策으로는 이미 臨時議會에서 豫算의 承認을어든 棉花栽培의 經濟的技術的援助 鐵 石炭其他鑛山開發等이 具體化하고잇다 今後特히 北中을中心으로한 鐵道建設에主力을 傾倒하고 日本側은 建設費의 四割五分을 占領한 建設材料를 現物로 出資하고 國民政府로부터 不生產的으로 濫費되는軍費、行政費의一部를 이에流用케하고 이것으로써 鐵道建設에 着手할方針이다 그리고川越大使는 着任後 國民政府當局과의 間에 此等 諸問題에 對하야 即時 交涉을 開始하고 먼저 滄石鐵道等 이미調査가끗난 路線의 建設에 着手할 意向이다

滿軍部隊 兵變을이르켜 蘇聯領內로遁入

蘇官憲、政治犯으로써庇護코 身體引渡要求를拒否

【東京電話同盟】十五日 當局에 達한報告에依하면 十一日 東寧縣南方四十粁妙嶺에서 四十名의 滿軍部隊가 兵變을이르켜 蘇聯邦領土內로 遁入하엿다 蘇聯極東官憲은 從來와如히 自國에遁入한 滿洲國兵士를 政治犯으로 庇護하고 滿洲國政府의身體引渡要求를 拒否할뿐더러 遁入兵士를 蘇聯에서 國境地帶의擾亂을 圖하는것이 常套的手段으로되여잇슴으로 各方面에서는 反亂兵士와 蘇聯과의 背後關係에對하야 嚴重注視하기로되엿다

白新內閣成立

【브랏셀十四日發同盟】반제란드首相은 十四日새벽 新內閣組織을 完了하고 國王레오폴드三世陛下께 閣員名簿를 捧呈하고 親任式을 擧行하엿다 閣員의氏名은 左와如하다

首相 반제란드(카톨릭黨)
副總理 에밀 반데벨데(社會黨)
外相 스파크(社會黨)
國防相 데니스將軍
司法相 옥구스트·도·슈라비(基督敎民主黨)
內相 흐란소와·호베스(自由黨)
文相 쥬로·호라르(에트라스트紙主筆)
藏相 로만(社會黨)
農相 멜체(同)
土木相 멜로(同)
經濟相 이자크(카톨릭黨)
勞働保健相 안루·로라엘(社會黨)
植民相 에르몬·루펜스(카톨릭黨)
遞相 안제아스팜(同)

改組案不成立時는 斷然聯盟을脫退

智利政府의强硬決意

【倫敦十五日發同盟】南米各國政府는 六月三十日부터 緊急聯盟總會에서 聯盟改組案을 提言하고 聯盟機構의 根本的刷新을企圖하고잇는데 右各國、特히 改組案의 急先鋒 智利政府와如한것은 改組案이 成立되지안흐면 斷然聯盟을 脫退할決意라고 傳한다 倫敦駐箚智利公使館側은 十五日夜以上의方針을 闡明한다음 左와如히 述하엿다

聯盟規約은 改正하지안흐면안되다 오는總會에서 規約改正手續이 採決되지안흘境遇에는智利政府는 聯盟을脫退할것이다

拓相과臺灣總督 一般注視裡會見

【東京電話同盟】中川臺灣總督의 進退問題에 關聯하야 注目되고잇다 中川總督과 永田拓相과의 會見은 十五日午前九時 三田의 拓相官邸에 行하엿다 먼저 中川總督이 渡東人事를한後 現下의 臺灣統治情勢 臺灣拓殖株式會社設立에 關한 總督의方針을 說明報告한다음 中川總督의 進退問題에關하야 兩者間에 서로 心中을 打診하는意見交換을 行하엿는데 다시 臺灣拓殖株式會社創立에 關한 重要協議를하고 同九時四十分 會見을 맛첫다그리고 拓相은 곳首相官邸의 地方長官會議에 臨하고 中川總督은 宮中에 參內하야 天機를 奉伺한後 各宮家에 伺候하야 御禮를 言上하엿다

▲永田拓相談

今日 地方長官會議에 出席치안흐면 안되므로 오래이야기할 餘裕가업섯다 臺灣拓殖株式會社의 根本方針과 首腦部에 關하야 意見交換과 事務協議를 行한것뿐이다 그리고 今後 種種 協議次會見할것은 勿論이다 今日은進退問題는 나오지안헛다

▲中川總督談

今日의 會見은 從來 人事를 兼하야 今回成立되는 臺灣拓殖株式會社의 根本方針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한데 不過하다 根本方針은 拓相이나 나나 臺灣까지 許이엇다 同會社의 首腦部人選 創立委員의 面貌等을 四十分假量의 會見으로이야기할수잇겟는가 今日은拓相이地方長官會議에 出席하므로 急하야 다시十八日頃 會見할생각이다 軍部大臣과는 아직 會見할 豫定은업스나 必要가 生하면 會見할는지도 모르다 나의 進退問題에 關해서는 여러가지말이 잇는모양이나 政府에 意肚 如何이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濟州島及南朝鮮視察中十六日午後三時十分着臨時列車로歸京

▲吉田鐵道局長夫妻 十八日、노조미號로歸京豫定

八面鋒

◇ 구름은 떠돌아도 비는 아니온다、嘆息의소리는 農村에서 都市까지들닌다。

◇ 科學이여 그대는 무엇을하는가、번개人불은잡아서도 비는 나릴재주가업는가。

◇ 터업는 문둥이風說이 온長安을 떠들석하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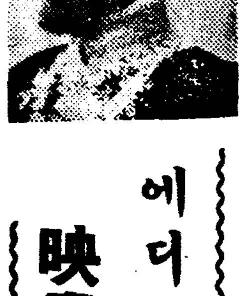
◇ 그러나、學校간아이를 모시러가기까지는 너무나 神經過敏의行動。

◇ 前丙子가 凶年이오 惡疾이잇섯다하야 今丙子까지 그러케 미들理由가 어대잇는가。

◇ 不吉이 오기前에 不吉을豫想하고 騷動까지함은 오즉人類만 가진 어리석은悲劇。

에디오피아皇帝 映畵主役에出演

【倫敦十六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셀라시에 一世는 亡國의悲運을 倫敦假寓에서 맛보고잇는데 近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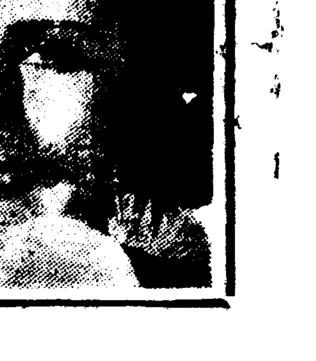
라로 銀幕에出演하리라고傳한다 倫敦人의興味를 끌고잇는이破天荒의 計畫을樹立한것은 英國의某映畵會社에서近近撮影을 開始할 에디오피아映畵의 主役으로반드시 皇帝의 御出演을願하는 懇請을 繼續하고잇다 皇帝는 週末前에 左右間回答을 與할 御制定이다 皇帝御自身도映畵에 依하야 에디오피아의悲運을 全世界에 紹介하야 自國에 對한 有利한 情勢를釀成하는 見地에아마 御出演을快諾하리라 傳한데 이미 伊太利軍이 에디오피아帝國을 占領한 關係上皇帝에게이金에適當한 地點을見出하기가 困難하리라고觀測된다(寫眞은 에디오피아皇帝)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種五圓十圓で敎へた秘法讀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不思議秘傳秘法寶典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現代出版社

鎭咳新藥
百日咳에 小兒用、고데스
醫學兩博士推奬
各藥店에서販賣 東京·大阪 笹岡製藥所

名實共ニ日本一
オリエント ￥85.00
ビクター ￥85.00
カイセン ￥85.00
グレヤー ￥95.00
紳士用 最高級自轉車
二年保證
朝鮮一手販賣店 京城府東亞輪業株式會社
神戶市 帝國鐵工所

國產 カッピー粉白粉
카피가루분
潑溂한 美의感激 美的香氣 평장한感觸
여一品어야말로 당신이 눈憧憬하고잇는 化粧美를 한업시表現식힐 世界的逸品이다
個個의性格에 꼭맛는 標準色七色
大型 小型
良品은빛난다 豐香園製品
東京牛込 本舖 田端豐香園



水銀柱狂騰!/炎熱地獄來!

작금 전조선을통하야 갑음이시 다 하고 측후소에 타진하여 작년에비교하면온도는별로차이가 작되여 비를기다리지 이미 오 봄이 지낫서임의 최고온도가섭 등이업스나작년은오월이십사일에 를 지어을 라가서보기 적이일보 아갈것인데 한모양이다 금후로더위가 례년에비교하야 얼마나 더 덥을런지 어떠할지는 아직 속단하기어렵다고한다

이제부터本格的더위 昨年과는大差업다!

◇……十六日正午溫度華氏八十八度三分

례거니와 겨우지난 십사일부터 곳곳에 가랑비가내릴듯도하다가 그대로 멈추고말아서 이때문인지 일기가 나날이 무더워저만 갈다 농촌에 물이업서 논바닥 어 갈라지어잇는것이 우리네의크나큰 근심일것수박게업스나마 이와동시에 찌는듯이 무더워가는 것도 유달리몸에 겨울게생각되다

☆ ☆

이제본격적으로 더위가닥처왓 씨(華氏)이십이도 로올라와서 날마다 오르기만하야 십이일이 이십오도 십이일이 이십일도 십삼일이 이십칠도 일분 십사일이 삼십도오분 십오일이 삼십도이분으로 올라가고 그적게 정오 온도가 이십이도이분이더니 어적게는 이십오도이분이되고오늘은 이십팔도오분=화씨(華氏)팔십팔도삼분=으로 올라갓다고한다 아직 가태서는 비가올것갓지안허 더위가 이대로급수(級數) 벌서 삼십도가 넘엇스니 금년은 추위 가는첫스 니만큼더 위가비교 적天게온 것인데그 러니만치 더위를득 기는 정 도가더심

天氣予報

槪況 七四九粍의 低氣壓은 北滿에잇고또 東支那海와 北海道東岸에小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에잇서 七六二粍를 보히고 그先端은 否狀이되여 朝鮮에 突出하고잇다 滿洲는曇、國境地方은 雨 朝鮮及 中部地方은晴、九州北海道는 曇天이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曇엇다 흐릿다하며 來日도갓고 京畿全區도 갓다

昨日 最高 二九度八
同 最低 一九度七
今朝 最低 一九度二
今日 正午 二八度五

※——※

死刑四十八名 生死가分岐되는"十八日"

間島共黨上告公判言渡日決定

한꺼번에 사형수를 열여덜명이나내어 세상사람을 놀래게한간도공산당사건 피고 김응수(金應洙)등 이십이명에 관한상고심이도공판은 드되어 십팔일오전열시부터고등법원 형사부법정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 열리기로되엿다 이사건은 조선재판사상 처음으로보는 대량사형수를내인사건이고또이번판결은 그들열여덜명중수의운명을결정할 최후의판결이니만큼 상고기각이되야 열여덜명은 전부사형으로 확정될는지또는전부사실심리를 하게될는지또는열여덜명중 면명만 사실심리를하게될는지 이번판결에하는자못일반의 주목을 끌고잇다

문둥이浪說퍼진 占쟁이拘留處分

돈벌기위한흉계●門前盛市

문둥이가 아이를 꼬여간다는 풍설을 퍼치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경찰서에서 취체하거로되엿는데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고등계에서는 십오일 오후에 그관내 랭천정(冷泉町)삼십칠번지 사는 봉사점쟁이 김상수(金相洙)(三)을 붓잡아다가허무맹랑한 풍설을 전파한 죄로 이십일구류처분을하엿다

이점쟁이는 작년시월부터 랭천정에서 점을 처먹고 살아오든터인데 점치러 오는 사람을 만히 끄을기 위하야 얼마전부터 동대문밖 모처에서 문둥이가 어린아이를꼬여가서 두손에 엿(飴)을 쥐여서 가마에 시루를 거러 그우에 안처노코 방금 찔려하는것을 자긔의 점으로 알아마처서 그아이부모가 구원해와다는 흉악한 풍설을 전파시켜서 요지음에는 점치러가는 사람이 하로에 삼백명식이나 모혀드러 무척 번창하고 돈을 만히버럿다한다 이사실을 서대문경찰서에서탐지하고 마침내 붓잡아다가 처벌하게되는것이라한다

小鹿島의返電 좀더기달리오!

天岸道衛生課長말하기를 문둥이아조업새기는어렵소

서울거리에 도라다니는 문둥이를 처치할 도리가업서서 경기도위생과에서는 십륙일에 전남소록도(小鹿島)갱생원(更生園)으로 수용할수 잇겟느냐고 전보로 문의하엿든바 그곳서회답은 얼마동안만 더 기다려달라하엿다 그래서 불원간에서울안에 잇는 문둥이를 치송하게 되리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야 천안(天岸)위생과장은 말한다 현재 서울안에 잇는 문둥이를 소록도로 치송한다드라도 또싀골서 작구 뒤를 이어올라오게되면 매양 그모양이겟스니 조선안 각지에 잇는문둥이를 전부처치하기전에는 서울거리에서 문둥이의 거림자가 살아지지 안흘것이라한다

梨泰院骸骨挾雜事件 李鴻淳等四名送局

일곱가지罪名五千餘枚의尨大한取調書類

辨償問題에警察은不關主義

지난달 이십팔일이후 오늘에이르기까지 세주일동안에 빠치여 여러번 본지에 특보해나려오는 리태원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간수장 리홍순(李鴻淳)(三七)외그의공범자로 경성부서기 박영옥(朴永郁)(三)그리고 리홍순의처남이자 그묘지 사무소서긔인 김순구(金舜九)(三)등 세명은 룡산서(龍山署)에서 그동안 문초를 박고잇든중 완전한 고비를 지게되여 십륙일 오전아훈시 오천여장의 방대한서류와 함께 사긔、독직、증회、수회、사인장부정행사、사금품문서위조행사、동사긔(詐欺、瀆職、贈賄、收賄、私印章不正行使、私及公文書僞造行使、同詐欺)등의 일곱가지길다란 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넘기엿는데 한동안 세상사람의이목을 어지럽게하든 소위 해골협잡사건은 이로써 완전히끗난것이라한다。

그러나 이사건 락착과동시피해자들에게의 변상문제가 숙제그대로 남어잇서 일반피해자들은 이것이 어찌될것인가?하여자조의 긔대들과 가티 경찰에서 리홍순의 사유재산이라도직권으로 어떠처분을해서 각각변상해줄것으로 밋고잇드니만치통산서에는 요지음 매일변상문제가 어찌되겟느냐?는 조회편지가 십여벌식 드러오는중 이나이것은 법률상 민사(民事)문제라해서 경찰에서도 불관주의를갓게 되엿기때문에 이제는 피해자자신들이 각자 리홍순을상대로 민사소송이라도 얼으켜여청구하지안는한에서는도저히수입하게변상시킬수업게되엿다한다。

落城갓가운鷄龍山

欺罔의本據"新都"의 邪教를一齊撲滅

忠南警察部管內各署에嚴達

鄭鑑錄黨頭上에鐵槌

【大田】 종독부방침으로 전조선적으로 수만흔민중을 기만하고착취하는 종교류사단체의 대탄압 면이 갈도경찰부에 도달되자 제일착으로 전보경찰부에서 정음(弁邑)에본부를둔 사교단체 보천교(普天敎)를습격하야 해산명령을 나리는동시에 간부급을 검거취조하며 그박멸을 획책한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여기에순응하야 미신의 소굴이며정감록(鄭鑑錄)을 맹신하는 계룡산밋(鷄龍山下)신도(新都)를 중심무대로 란무하는수십 종류의 사기적 종교류사단체를 가진충남경찰부 고등과에서도 지난십이일 도내각경찰서에 지령하야그 관할에잇는 아덕종교 류사단체를 철저히조사보고하는동시에 그를 박멸하라고 명령하얏다 도내각경찰서에서는 방금 엄밀한 조체의 조사에 분망중이라는바경찰에서 엄밀히조사한결과 철저히 박멸하야 그근거를 업새리라고한다 이미 박멸키로결정된 것은 대뎍군진잠면(大德郡鎭岑面)에잇는 대동교(大同敎)를 위시하야 신도내에잇는 천불교(天佛敎)칠성교(七星敎)단군교(檀君敎)태을교(太乙敎)등외교 등이라하며 그외에도 조사한결과에의하야 소탕될것이 다수이라는바 이소문을 드른종요간부들은 피신하는사람까지잇서 불원장래에 종교류사단체의 형적은 감추워지리라고한다

既設校도擴張同時 市內普校二個增設

財源은增稅와起債로充當해

총독부의 제이차 초등교육확충안에 의하야 명년부터 확장또는증설하여야할 시내보통학교문제는 저번 경성부당국과 제이부교육부회원간에 루루히회합연구한결과 금후일부 종세를하는동시에 긔채(起債)를 더해서라도 매년학급의 자연증가를 재하고도 다시 이십학급식은더늘리도록 하자는 안을 세우고 이에의하야 계획을 진행중인데 이와가티 학급증설을 하는데는 우선명년에 학교를 새로두곳을 더세우고 그여는 이왕잇는학교의 사정을 참작하여 더증축하기로되엿다 그러면 이가튼학교의 신설과증축에 필요한 경비는어떠케지출케되겟느냐하는것이 또한문제인데 첫재새로학교를 두곳이나증설하는데는 초년급을다섯학급으로하고 장래는삼십학급이로한학교한곳에과지매수비용을제한신영비(新營費)만도 이십사만원이들므로 한꺼번에두학교의신영비 사십팔만원을 지출할수업서서 위선은 삼긔로난호기로하고 명년에는두학교신설에 각팔만원식지출키로하엿다 그러고그의지출로보아도 신규로예산이상당히 증가를보게되는데 수입으로보면 명년부터는 총독부의보조도 종래한학급신설에 일백오십원이든것이 사백오십원으로종가되게되엿고 도제이부 특별경제의호별세는 일할오분의 증세를하여명년에 십이만여원을 더바더드리기로 되엿시나 그래도지출이부족하여명년만도 새로히사십오만원의 긔채를 하지안흘수업시되엿다 즉일할오분의 증세를하고도 다시금년의 긔채액삼십만원에 비하여 십오만원을더긔채하게 되는것이다 그러고 새로증설할 학교와 또증축할학교에대해서는 주민들의 운동이잇슬것과 또 토지투긔업자들의 암중모책이 엇슬것을 념려하야 극히신중하 비밀공작을 하고잇다고한다

大邱에酷暑

炎熱地獄下에慘劇兩件

【大邱】 요사이의 수은주(水銀柱)는 점점올르고 올라가 벌서 회씨구십칠도이부를 돌파하야 삼복더위에 지지안흘만치 평장히 더웁다 이러케 혹서로 말미아마 벌서 익사(溺死)——살인등의참사가 두건이나발생되엿다

◆…본도경산군안심면(慶山郡安心面) 률하동(栗下洞)칠칠칠번지 리봉양(李鳳洋)의장남 태수(泰洙)(三)는 소화통변십이일경부터 정신에 이상이생겨어래로 정신병자로 갈금지료하든중 혹서로 말미아마 더욱발광케되여 지난 십삼일오후네시쯤되여 갑곰실에서 뛰여나와 가리두자여섯치되는 동물가지고 그어머니되는 김영모(金永模)(♀)를가여 제지한다고 매상을구타하야 즉사케하엿다고한다

◆…십사일 오후여덜시쯤되여

六年부터半年 執行猶豫가七名

—金貴南等二十三名被告—

咸北赤農事件言渡

【淸津支局發電】 함북적색농민조합(咸北赤色農民組合)사건의 판결언도 김귀남(金貴南)등 이십삼명에 대하야 십륙일오전열시에청진 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직여륙년내지 륙개월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그가운데서 일곱명은집행유예로되엿다

被告名	(求刑)	判決
金貴南	七年	六年
朴昇龍	六年	六年
鄭昌燮	六年	五年
崔三甲	六年	五年
孟鍾鎬	四年	四年
鄭日仁	四年	三年
吳楮石	三年	三年
吳日松	三年	三年
李一洙	三年	三年
申昌得	三年	三年
崔學松	二年半	二年半
東錫聖	二年半	二年半
白龍保	二年半	二年半
李基昌	二年半	二年半
(以上未決通算各五百四十日)		
李八石	二年	二年
兪離松	二年	二年
李貞鳳	二年	二年
李龍哲	二年	二年
(以上各未決通算三百六十五日 但各執行猶豫五年)		
鄭德仁	二年半	六月
李東俠	一年半	六月
全興松	一年半	六月
(以上三名執行猶豫各四年)		
金龍三	一年	一年
金姜龍	一年	一年

運動競技

三醫專陸上 廿日、龍山運動場

京城醫專、平壤醫專、大邱醫專의三校로 組織된 朝鮮醫學專門陸上競技聯盟에서는 第一回陸上競技大會를 오는二十日午後零時半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바 遠來의 大邱醫專과 平壤醫專은 十九日朝에來京할터이라한다

『르이스』를凌駕할 黑人『헤인스』出現

米國拳鬪界는褐色爆彈『루이스』에게 完全히 占領된 늣김이잇서 白人의 希望은 挫折되엿다 그리하야 米國 白人들은 『루이스』選手를 擊退함에는 오즉二十歲前後의 靑年鬪士를 養成하야 『루이스』君을 打倒할수밧게업다는 소래가놉하저 잇든이때에도 다시리로이·헤인스』라는 黑人 『허비·웨이트』選手가 忽然히出現하엿스니 그의戰績을 살펴보면다음과갓다 『헤인스』는 三六年版의 『레코ー드·북』에도記錄되지못한最近에나타난 黑人拳鬪家로서 네번對戰에 燦然한記錄은 모다先輩『루이스』의 成績을 凌駕하는實力을보이엿다 卽前年에『루이스』가 十回戰에 打倒치못하엿든『나테이·뿌라운』을 헤인스는 不過二回에 打倒하야버린것을비롯하야 『루이스』가 六回에打倒한『가르네라』를 겨우三回에서 K·O시켜버리고 第十回에서 겨우判定으로이긴 『한스·바ー키』를 五回에、判定勝의『바스데이·비로니ー』를 三回에서 各各녹아웃하야버린 巨漢이다

올림픽競技에 排球參加運動

從來에잇서서는 東大會以外國際的競技에는 參與치못하든 排球界에 突然代表者를派하다 그것은 和蘭、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三國排球聯盟으로부터 代表하야 和蘭排球聯盟을 日本排球協會로 올림픽進出運動을 爲하야 日本排球界의 現狀을 紹介를 希望하야온것인데 協會側에서는 곳協議會를열고 聯盟에서온 競技規則을 中心삼어審議한바 規則上에는 큰相違가잇스나 올림픽種目 加入運動에關하야서는 絶對로 支持한다는旨를 回答하는同時에 日本協會規則도 合해 發送하기로 決定되엿다 그리고 聯盟에서는 世界各國의 狀態를調査한後에 오는 올림픽大會와前後하야 開催될 IAHF(國際핸드볼聯盟)總會에 提示하야 올림픽種目加入을 積極的으로 主張할터이라고한다

鋼林卓球俱樂部 高麗卓球聯盟을脫退

鋼林卓球俱樂部에서는 昨十五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明治町樓上에서 臨時總會를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 決議하엿다

一、高麗卓球聯盟을 脫退할時에 本俱樂部員으로의職分을 全部辭任할것
一、第五回開城中央俱樂部와의對抗戰은 七月上旬에 開催할것
一、第三回卓球講習會는 八日中旬에開催할것

研武館昇段試合

朝鮮研武館에서는 來廿日午後七時半부터 同館道場에서 定期昇段進級試合을 擧行할터인데 一般의觀覽을 歡迎한다고한다

纛島鐵棒强盜 犯人은被害者

십오일 오전세시반경에시외 서독섬(西纛島里)림옥석(林玉石)의 집에 침입하엿든 강도범인 리한필(李漢弼)(二七)이가 체포되엿음이어 지난십일열에도 시내 옥수정(玉水町)사는 전선길(全先吉)(二〇)이가 역시서 뚝섬에서 품파리한돈 삼원구십전을 바뎌가지고 발열한시경에 도라오다가 쇠몽치든 강도에게 강탈을 당하엿다는것은 그때에 도쏨바와가티 의심되는점이 농후하야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십이일이래 전긔피해자를류치하고 엄중취조를계속한결과드듸여 처음의신고와가티 허위강도로 판명되엿다

鑛山詐欺漢

鍾路署에被捉

십사일 시내종로서사법계에서는 시내 청진정(淸進町)에사는 김기영(金基榮)(三〇)외 한명을 사긔협의로 붓잡아다가 방금문초중인데 그들은 시내종로통의모 금은상에서 『다이야』반지등을어떤부호의 이름으로 외상으로사가지고 이를저당잡혀먹은혐의인데 그피해가 수천원에 달하며 그들의 배후에는 전촌(田村)—假名—이라는 일본내지인이 잡재하야 다른사람의광산을 자긔소유의것인체 꾸며서 수천원의금전을 사긔해먹은 혐의가 농후하야 방금그서에서는 전긔전촌이의 소재를 엄탐중이다

妓生廢業한뒤 世上悲觀코飮毒

십륙일 새벽한시경에 시내의 선정(鮮善町)일백십삼번지의이호 박간란(朴干蘭)(二八)이가 양재물을먹고 자살을하랴고 고민하고 잇는것을 그의동생이 발견하고 곳부근 전일당(全一堂)의원에가서 급히치료를바든결과 생명은 무사하엿다는데 전긔 박간란은 작년말에 긔생을폐업한이후 생활이빈궁해잇던중 최근그의 아버지가 병들어죽은후에 세상을 비관하야 죽어버리려든것이라고 한다

水泳中小兒溺死

魔의漢江今年의첫犧牲

올여름에 들어서 처음으로혜엄작난을하다가 빠저죽은참사=지난보름날 오후세시 사십분 시내서빙고(西氷庫)한강상류 오십『메돌』가량되는지점에서 서빙고정(西氷庫町)에사는 김계순(金桂順)의 아우계정(桂町)(七)이가 혜엄을치고 놀다가 실수하여빠저 물속에잠긴것을 때마침 지나가든 룡산공병이십련대(龍山工兵二十聯隊)에잇는 태전(太田)상등병이 보고 따라드러가서 건저내가지고 빨리구호햇스나 드듸여 현장에서 숨이 끈허지고 말엇다한다。

由緖기픈別宮은 徽文義塾財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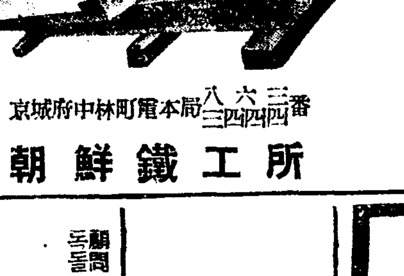
一部는 나인住宅과 一般에

昨日契約을完了

벌서부터 팔린다는 소문이항간에 널리전파되여 나려오든안동별궁(安洞別宮)은마침내 휘문의숙(徽文義塾)으로 륙천평중에서 사천평이 매평칠십원식에넘어가게되여 그정식계약을 지난보름날 리왕직과 그의숙리사사이에 매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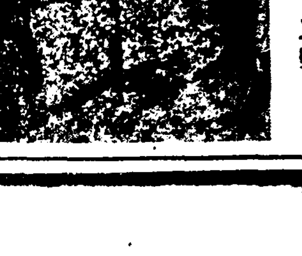
휘문의숙에서 이땅을사게된것은 지난번 고 민영휘(閔泳徽)씨의 유지로 그의 미망인되는 안유풍녀사(安遺豊女史)가휘문보속보통학교설립긔금으로 그 부한 삼십만원을 가지고 그과지로 쓰고저하는것으로서 멀지안허그설립을 보게될것이라한다 그리고 남어지 이천평중에서 일천삼백평가량은 지금 그곳에 주접하고 여생을보내는나인들의 숙사를 지어주고 최종으로떠러지는 칠백평만을 점포용으로일반에게 떼여팔게 되리라는데이로서 유서기픈 북촌거리의 명물은 또한가지 자태를 숨기게 되엿다한다。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新案二二二七號

特許一一二〇二九號



新案二一七二四〇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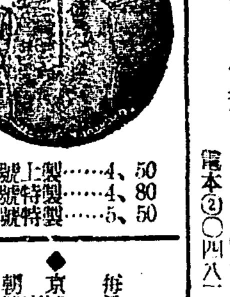
京城府中林町 電話本局三六四四·八三四四番

朝鮮鐵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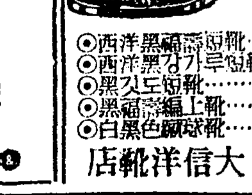
鐵道省御用、商工省御推奬 拔き荷絶對防止 守屋式 鉄線荷造機 帶鉄荷造機 京城府岡崎町九 代理店 湯澤商店 電話龍長五九八 新案登錄

朝報案內 新職業 生活安定確實 新發明 南京虫·蚤·蚊 撲滅 需要無限 獨斷的有利職業 資本極少로되며 但一地方에一名限으로 活動家를求함 案內說明書進呈 郵券二錢要함 京畿線金泉驛前 大野洋行

蹴球 實費提供 (二個一年上保險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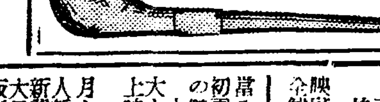


◉五號上製……4、50
◉五號特製……4、80
◉六號特製……5、50



◉西洋黑縫蹴球靴…3、80
◉西洋黑갓가루蹴球靴4、80
◉黑갓도短靴……6、50
◉黑縫蹴編上靴……5、50
◉白黑色蹴球靴……5、00
京城鍾路 大信洋靴店

개량담배대 便利하고價格이廉하야 京鄕에流行되는담배대이다 製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製造發賣元 京城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男女とも 毒を受けたと思はゞ 毒掃丸を召しあれ 気分よく体毒を排泄す 薬店にあり 代二十五錢五十錢一円二円
남자나녀자나 독을바든가치생각되면 독소환을잡수시라 기분조케체독을배제함 약점에잇슴 약가 이십전 오십전 일원 이원

迅速 夏物 合理的經營法에依한生産品을直接販賣하난 亢羅、春紗、生明紬、改良紬、明紬、交七色 熟素、本絹熟庫紗、平安苧布、麻布、靈繭、生絲、石油 朝鮮平北寧邊城內 平安機業社 振替京城二三四七二番 電話寧邊五九番 私書函寧邊三番 時勢表進呈

中央館 永樂町 電三六三番 月よりの使者 入江たか子、高田稔主演 江川なほみ 中野かほる 婦人俱樂部連載 原作 久米正雄 監督 田坂具隆 新興キネマ大合同作品 人斬り猪之松 阪東妻三郎主演 泉清子、橘公子、五十鈴桂子、嵐璃德 阪妻プロ總動員出演 新興キネマ提供 原作 永井康友 脚色 多田羅三平 監督 山口哲平 大日本自由映畵プロ特作 當る十六日特別短期公開(二日間) 初夏映畵シーズンに放つ名畵往年の傑作 競映週間! 大衆料金 階下 大人 小人 十錢均一

團成社 映畵殿堂 全鮮第一 上에서下까지 伊太利가나은優雅典麗한音樂映畵 面影 G·W·파부스트監督作品 로비스社의精鋭를網羅하야 痛快한諷刺名喜劇이도다 伊太利A·C·I超特作映畵 洪吉童傳 後篇 李慶善、李錦龍、李鋼哲、羅雄、金寶圭 主演 朝鮮語全發聲日本版 李銘牛監督作品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畵 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六月十日封切

顧問 工藤武城 院長醫學博士 癌科 라듸음科 松本泰治 女醫 李敏信 京城婦人病院 電本②〇四八二番·京城北米倉町九四

謝近火慰問 黃金町三丁目三二二番地 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 京城支部

ランランチック (란란지구) 이것입니다— 日本에서第一最高級작구—라는것은— 혼자서쓰기가 앗갑군 꼭 다른분에게勸告하고십흔 직구이지요

本舖製品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結核 肋膜炎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구아야콜부루도ー제)

グアヤコール 小瓶 二円六十錢
ブルトーゼ 大瓶 四円三十錢

結核이治療되는가아닌가는 疾病의時期、病勢의程度治療方法의適 不適에 關하는것이다、特히結核은그病竈가自體의一部에局限되엿다 하더라도病竈로부터産出되는 毒素는全身에미치는結果發熱病食慾不振羸瘦等全身的症狀을 惹起함으로써全身的이라고그에對한 治療도單純히局所的對症療法에끗치지말고全身療法을施行할것이다。

더욱히結核은急性으로經過하는 粟粒結核을除하고는흔히緩慢한 慢性의經過를밟게되는關係上患者는嫌氣와 恐怖를感하게되며、더욱히悲觀될念慮가增大된다、乃終에는神經衰弱症의 狀態를나타내는것이만타。 그리하야 治療는漸次로困難하기때문에、初期에잇서서는 診斷를確定하야治療와養生如何에依하야 不治가아니란것을充分히理解하여두는것이무엇보다必要하다、

以上과가튼 一般的狀態의분은 結核을恐怖하는傾向이큼에反하야 肋膜炎을輕視하는觀이잇지만兩者는極히 親密類似한關係가이슴으로써結核同樣의觀念을가지고 極力養生에 注力하지안어서는안된다

ブルトーゼ는
造血아우트호르몬으로써
血液의新生補給
血液의清新淨化
의二大作用을겸하야 때때로結核에따루는 貧血에卓效가잇스며又는 消化된蛋白資源으로써
エネルギー補給
體蛋白消耗補給
細胞의賦活作用
을有한結核과가튼 消耗性疾患에不可缺의 全身療法 입니다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는
ブルトーゼ에 古來로結核에特效잇는不溶性구아야 콜ー을包含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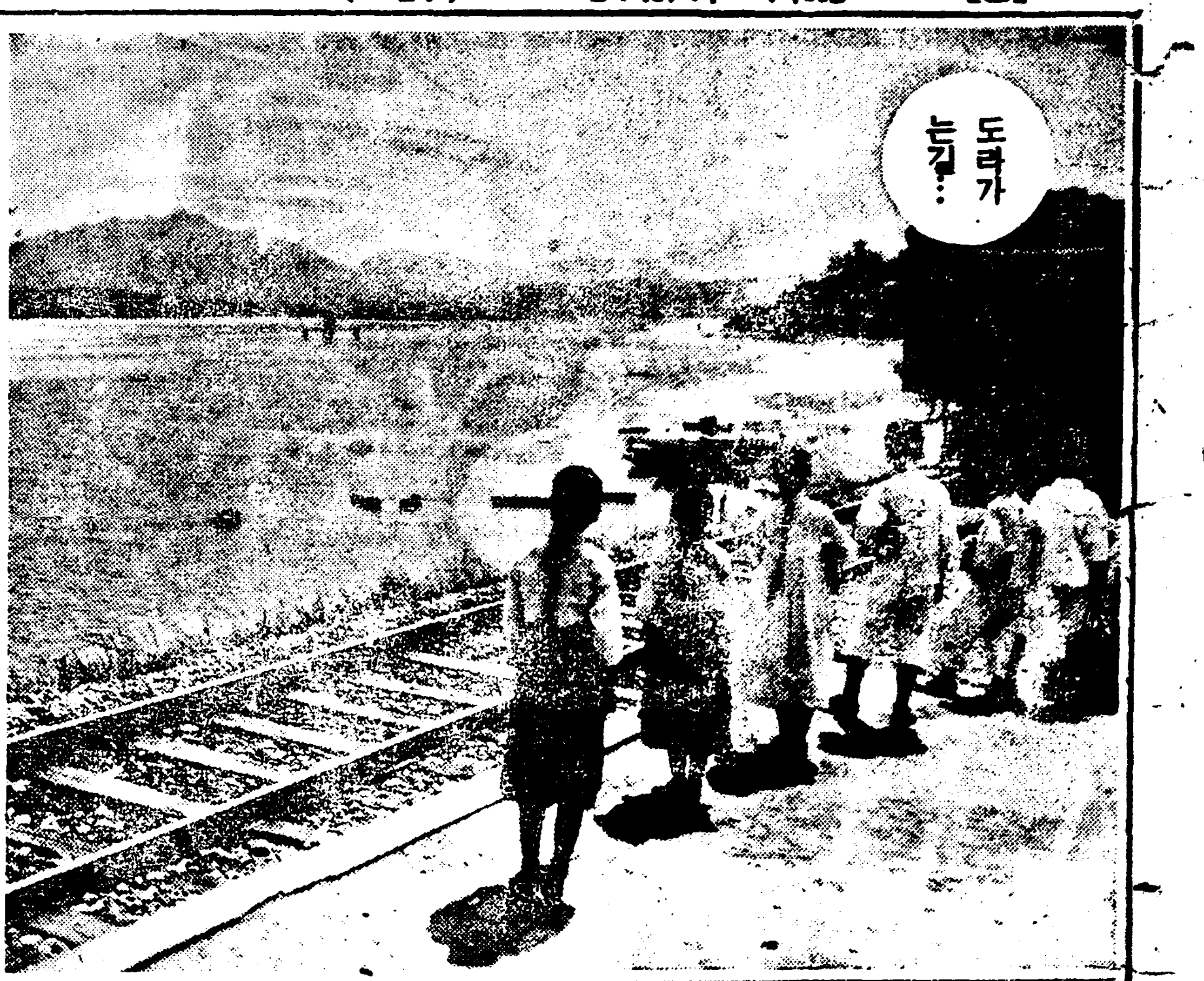
結核은毒素의排出에依하야全身에影響을끼치는일이가장重大하다따라서全身의代謝機能에多大한變調를招來한다。故로이消費된에네르기ー를補給함에는구아야콜ー부루도ー제와가튼全身療法과局所療法을兼備한特效藥을服用하야血液의循環과新陳代謝를活潑케하며貧血를治療하야食慾을增進하며體重을增加하며全身의抵抗力을强化하는一方結核菌의活動을阻止하며氣道粘膜의分泌及炎症機轉를調整하야喀痰를液化하야、그를減하며漸次로健康에引導한다。

補血強壯增進劑	單味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 / 金三圓二十錢
神經性疾患特効劑	アルゼン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腺病質特効補血強壯劑	ヨード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健胃補血強壯劑	キナ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醫學博士 小田俊三先生著 「呼吸器病の養生法」 申込次第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東京日本橋區本町・京城府西小門町

GB-18



날개가도친풍설 완연"문둥이난리"

이십칠년전엔혼인난리도잇섯다

냉정히대책을연구할일

지금으로부터는 벌써 스물일곱해전입니다마는 그해에 혼인난리란 괴상한 난리가 잇섯습니다。그괴상한 난리는 어대서 색시를 모도 잡아간다고해서 십여살 내지 칠팔살된 딸만둔 집에서도 그저 닥치는대로 신랑을 골라서는 시집을 보내든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웃으운 노릇이엇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럿이 들떠드는통에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도 소용이 업섯습니다。풍설이나 미신이 가만이 생각할때는 하치안한것 가터도 여럿이 우덩비어 떠들때는 가당치도 안습니다。요사이 문둥이에 대한 풍설도 그와 비슷하지안습니까? 쥐꼬리만 밋절미에 발을부치고 날애를 달아서는 왼통 외서울이 발끈 뒤집지 안습니까? 하여튼 문둥이란 병이 조처 안한것만은 사실입니다。이것을 긔회로 성모병원장(聖母病院長)박병래(朴秉來)씨에게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다가 전해드립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氏談

문둥시병은 병중에도 가장난치의 병이요 추저분한 병일뿐이 아니라 가장 경과도오래 끄는병입니다。속담에 저도 모르고삼년、저만알고삼년 남이알게 들어니 삼년이라고까지 하도록 질깁스러운 병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문둥人병을 흔히들 유전(遺傳)으로 아오나 유전이아니요 다른 전염시병과가치 이사람에게서 저사람에게로 균이올마다니는 전염시병입니다。비교적 다른병과 달러서 쉽사리 전염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지오마는 그러다고 한만히 생각하얏다가는 한번 옴라는날 큰탈입니다。문둥人병의 전염은 대개 피부의 접촉입니다 요사이가치 문둥이가 만히돌아 다니어서는 사실로 전경성의 부민의 위생을위하야크나큰 문제입니다。더구나 그병어란 다른병과가치 예방하는도리가 잇는것도 아니요。완치하는약이 잇는것도 아닙니다。그저 그런병자는 이사회를 위하야 이사회로 부터 멀리 격리시키는수밧게 떠업습니다。

×

병의 경과는 우에서도 말습한바와가티 꽤 지리하야전염후로부터 증세가 나타나기까지도 칠팔개월 내지 이삼년이나 걸립니다。그 병이유행하는 지방에서는 아모러티안타가지고 그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삼년을 지난뒤발병되는 레도 드물지 안습니다。하여튼 맨저옴 발병의전구(前驅)로 오래두고 몸이느른하고 구미가 업고 코피가 나오고 코스속이 메마르고열사를 하는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연 나타나지 안키도 합니다。그래서 그런증세를 한번 긔치거나 꼿바로나 발병의 시초로 한달동안 얼골과 살스가죽이 이상해지며 눈섭과 이마의머리털이 빠지며 압이마나또는빰가에 경계가 분명치 안케나마벌건빗이 떠돕니다。벌서 그때부터 본격적 문둥이나 문둥병에는 두 종류가 잇습니다。첫재는 신경라(神經癩)요 둘재는결절라(結節癩)로 그증세가 다소 다른데 신경라는 좀 경증임에 반하야 결절라는 아조중증입니다。

허무한미신으로 죄악을짓지말라

×

예방하는 방법이나 완치되는약은 이미 이우에서 말슴한바와가치 전연히 업습니다 의학게에서도 고심 연구하는 이들이 만흐나 아즉껏 발견되지 아니하얏습니다。사람의 살 그중에도 어린아이의 부자지로 약을 한다는 것은 조선전래의 미신입니다。인도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차치하고 의학상으로 허무맹낭한 소리입니다。그러나 문둥이들은 그러한 미신을 미더 가지고 흔히 인도상 죄악을 범하야 제병도 고치지 못하고 구경이 중의 메인을 이루지 안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문둥병자를 전부 소록도가튼데로격리시키어 버린다면 아모 문제가 업스련만은 잘 그러케되지 안는 모양이 아닙니까? 서양서도 십오세긔경에는 문둥시병이 한참 유행하얏습니다만은 전부 사회와 격리시키어 이제는 그다지 만치안습니다。놀웨이란 나라만도 일천팔백오십육년에는 이천오백구십팔인이나 되든것이 천구백이년에는 이백사십삼인으로 바짝 줄엇답니다。

(文責在記者)

―사진은 문둥병환자를 중제로하고 그린 서양명화―

童話

지장떡과 임검님

裵先權

어느시골소년하나가 남달리 농사를잘짓드래요 어느해 바테다 지장(차서숙)을갈고 가을에타작을해서 밥을해먹다가 하로는

『지장으로는 떡해먹을수업나ㅣ』

하고느끼바잇서 어머니를식혀 떡을해서먹으니까 참맛이야 찰떡과 박우지안홀만치 조왓드래요 그래떡을먹으며 생각하니

『아니 나혼자 이러케 맛잇는 떡을 먹을수잇나 그러나 우리나라님검님은 이런떡을 잡서보지못하섯슬게다』하고 생각한소년은 래년에는 올보다더 맛이잇게 떡을 만드러 님검님께 올릴 결심을 햇드래요

이듬해 반마지기(百坪)바를정해노코 고랑을잘타서 씨를뿌렷드래요

그래 씨심을때부터 이지장은 우리님검님께 드릴것이니 오몸과 마음을밧처서 오정성을 다드렷드래요

그래가을이 도라와서 거름을잘한 그지장은 오실토실 누런황금비체 익은열매는 추먹만큼한 한목양이는 보기도조왓드래요 지장을 남보다 일혹거더서 전보다마당도깨끗이씰고 타작을해서 그어머니는 가루를빠코 소년은방아를찌어 밤을새두록 떡을만드러 큰도실박에다 님검님 드릴 지장떡을지고 길가면서 때차저먹을 떡을싸고지고는 님검님게신 서울을차저가려 길을떠낫드래요

이소년은 하로하로 길을가며 서울이란곳을 무러가는데 하로는

『여보 서울이 몃리나 되오』

지내가든행인은 그소년을 아래서부터 얼골까지바라보나 가래가래 찌어진옷을 입고 보기에 궁상스러우니까 공손한 대답이 나오지안습니다

『너ㅣ무얼하려 서울가니』

『아니 몃리라는건만 일러주십시요』

『응 한이백리나 된다』

『네가 서울가 무얼해』하고코우슴을치고 지나가는사람이 잇섯드래요 그소년은 여러날고생을해서 닷새만에 서울을 드러스니 저녁때쯤되엿는데 님검님게신곳을물엇드니 사람마다

『네가무슨 님검님을 차저뵈려왓니 우리도 못뵈왓는데』

하면서 미친놈으로 역이드랍니다。

그소년은 할수업시 밤이되며 이골목 저골목 차저단이다가어느한모퉁 대문아페 도실박떡을 내려노코 길검은 고단한다리를 쉬려 도실박을안고 눈을감고잡이드러니까 대문안에 조룽에가티인새인지 어느나란에서인지 새날개치는소리들리며 각금짹짹소리도 들리고 벌네는 처량이 울고잇는데 그소년은 고요히머라를 이르켜 래일님검께 지장떡을 드릴일이 떠으니 깁버서 어둠아페 하품한듯우슴을짓고 잇는때엿드래요

자박자박 인적소리가 들리드니 누군지 그소년을 건드리며

『여보 당신은 누구요』

『네나는 저시골서 왓는데 님검님을뵈려왓다가 밤이되여 이곳에서밤을 새고잇습니다』

그뭇는이는 바로 님검님이신데 밤마다 성한바퀴을도십니다 그날밤맛침 동대문게서 그소년을 맛나뭇는것이엿섯대요

『저 시골이라니 어듸야』

『이곳서 한오백리쯤 되는 돌이 도치란곳에서 왓습니다』

『그래 님검님은 무엇하려 보려왓소』

『다른게아니라 내가한해 지장농사을지어 떡을해먹어보니떡으나맛이 잇기에 우리식구만 먹고보니 악가워서올해는지장떡을만드러 우리나라님검님께 드릴려고 정성을드려 만드러가지고 서울을 올라온것입니다』하고 대답햇드래요

『응 너는 정성을 다ㅣ하얏네 나라 님검님을 생각한것이로구나』하고 님검님은 속마음을 먹으시고

『그래 그떡좀먹어볼수잇슬가요』

『네 그러십시요』 자기가먹든떡 한개를 드리엿드래요

『맛이떡으나 촌소만은 님검님 드릴 떡을 좀 먹어볼수잇소』

『머요』하고 빽을 딱 때리고

『당신이 누군지는몰으겟스나팻심하게 님검님드릴떡을 먹어보자나』

『네ㅣ잘못햇소 그럼이곳서 지무시고 래일아침 사람을보낼께니 그사람을따러 님검님을 차저가시오』하고 님검님은 도라가섯드래요

이튼날아침 입검님이 신하를식혀 그소년을 데려왓드래요

그래입검님은 그소년의 떡해온 내력을뭇고 가저온떡을 바덧드래요

『너는 내게 이와가티떡을 해왓스니 너는 무슨소원이고말해봐라』

『별다른 소원업습니다 그저어지신님검님께 만수무강하시기를……』

님검님은 이말을드르시고 깃부해서 그의시골원님노릇을 식혀섯습니다 ―(끗)―

자전거타시는

화란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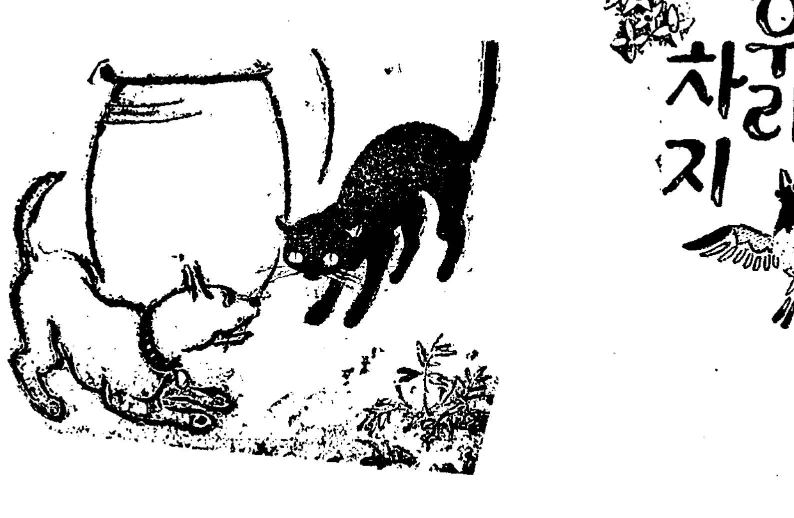
화란의 왕녀『쥬리아나』공주는 기질이 매우활발하시어서 어머님되시는『윌헬미나』폐하와함께 여름에는 수영、겨울에는 스키ㅣ、이러케 신ㅣ의 단련을위하야늘열심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평일에는 자전거타시기를 조와하시어 아주 평민적으로 거리를달리신다고 합니다

사진은 동무되는분과함께 서울의거리를 자전거로 도라다니시는 쥬리아나공주(왼쪽)

고양이와 개하고 싸우면 어느편이 이길까。

고양이는 조고마해도 날새고 독하다。 개는 몸집이크고 기운은 세어도 겁쟁이다。그래서 서로 막다들릴때 으르렁거리기는해도 싸우는일은 별로 업는모양이다。

(글쓴사람 한이순)



美容室閑話

향수의매력

② 吳淑根

『북풍(北風)아!이러나고 남풍(南風)아!이러나서 나의동산을불어 그향긔를 날닐지어다。원컨대 나의사랑하는자는 친히 그동산에드러가서 그아름다운실과를 먹을지어다。』

『네젓은 포도송이갓고 네코의숨은능금내암새갓고 네옵성은 맑기가 조혼술가타서 나의사랑하는자에게마시워 자는자의 입설로말하게하는도다』

이것은 구약(舊約)『솔노몬』의아가(雅歌)에나온 시구(詩句)입니다。얼마나 상고시대부터 향과의매력에대한 례찬(禮讚)이 심각(深刻)하엿든지를 알수잇습니다。

향료의래력

지금 우리가쓰는 향수처럼정제(精製)가되기는 근대부터이지만 향료는원시시대(原始時代)부터발서 써왓답니다。세계문명의 발상지(發祥地)인 애급(埃及)과메소포타미아、인도(印度)、지나(支那)제국의 옛긔록에 향료에 관한 전설이만흔데 그시대에는 모다훈향(薰香)뿐으로 동서양을 물론하고 종교의식(宗敎儀式)에 업지못할 물건으로 오늘날까지 써나려왓고 또애급에서는 만흔 훈향을가지고 거긔서 향긔를뽑아낸 지방유(脂肪油)로 얼골과 신체전부를 회장하는외에 사체(死體)보존에까지 만흔 향료를 썻다는데 근래파낸유명한『트ㅣ탄카ㅣ맨』의 무덤속에서나온 석고(石膏)로 만든 향약병(香藥甁)가튼것은 당은그릇도 극히 아름답거니와 병속에서는 파낼그당시에도 오히려 말할수업는 향긔가 떠돌드랍니다。

그후로마(羅馬)시대에와서『호란끼파니』라는귀족(貴族)이 향료(香粉)을주정(酒精)에 올녀서 쓴것이 액체(液體)향료의 시작이요 최근에향수로서 일충진보를 보인것은 우에서말한『홍아리』의『에리사베스』녀왕의 발명이그것입니다。

×

동식물(動植物)에서 채취하는 천연향료(天然香料)외에 인공향료(人工香料)가 발명되기는 십팔세긔부터 십구세긔동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제사에피우는 향목(香木)은 조선에서나는것이나 그외에제조향(製造香)으로말하면 아마 중국으로부터 불교(佛敎)가들어올때에 무더오지아니하얏나십습니다。

가정의화

육아종(肉芽腫)

問 소생은금년십팔세미혼남자이온데 한이년전에 귀여페 화상(火傷)을 당하엿든자리에 지금은 혹가티붉은 고기가 나와 두번이나수술을하엿스나 또나옵나다 어떠케하면업세겟습니까 (一讀者)

答 새살나오는데 세균전염이 잇스면 육아종(肉芽腫)이되는것입니다。

거죽에나온것만 떼어서는 몃번이고 나올터이오니 가피서부터 철저히도려내는 수술을바드십시요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連載小說

아카시아(十一)

安碩柱 作 金熊超 畵

밤열두시가 넘어서야 영섭이가××관이란 료리집을 나와다 낫에는 전무의말과가치 회사원을모하노코 사장이하 중역들도 다ㅣ모혀서 영섭에게 시상식이 잇섯고 회사원들의 발긔로 축하식을 료릿집에서 한것이다

식장에서 금일봉이라는 이천원소절수가든 봉투를바덧다

영섭은 급사아이인환이를식히여 은행에서그소절수를 바꾸어다가 인황이를 넌지시불러서삽백원을주엇다。인환이는 이것을 바드면서 눈물을 흘리엿다 그것은돈을보고 흘리는 눈물이아니엿고영섭의 큰 마음에 감격함이엿슬것이다

영섭은『아카시아』의길을 거러서 그의집으로간다。

아카시아의꼿향긔는 꼿이 질룸엽이 되여서그런지 코를 몸시 찔럿다

그러나 만약 오늘가튼날 자긔의안해가 잇섯드면 발거름을 빨니 하얏슬것이요 오늘에 되일을 이야기하면 그안해는 즐거움으로해서 밤을 새웟는지 모른다

간사람을 생각해 무얼하랴하엿지만 이번 그건축설계를 밤마다 책상머리에서 몸을 꾸부리고 꾸밀때 자긔안해의 도움이 컷섯다 중역실은 내분는어떠케 꾸미고사장실은 어떠케꾸미고 기타 녀자의 조밀한 생각으로 도아줌이컷섯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자긔한사람이 맨든것이아니라 자긔안해와 두사람의 힘으로된것이라하면 지금에 그는마음이슯푸지 안흘수업다

『이것은 꼭당선될것입니다 내가생각해도 조선에서는 최신식이면서 견실한 건축이될것입니다』

지금도 그안해의말이 귀에쟁쟁하다

또 그것을 회사에제출하는날

『꼭 쓰게되엿스면 조켓는데요 아모리 기구나는사람이잇다드래도 이것만은 이울수업슬걸요』

하든 그안해의 진심에서나온 축원으로 맘기피 눈물겨웁게듯든 그때에 기억이소스라친다

――그녀자는 나의큰후원자이엿섯다 나를 위대하게 맨들수잇는 녀신이엿다 힘이엿다

참된 안해엿다 그큰 힘을나는 일흔것이다 그일흔힘을 어듸서다시찻는단말이냐。

영섭은 술도취햇스러니와 옛날 모든 정회가 끄러올라와서 엉엉ㅣ소리를내며 울고간다

집에드러온 영섭은 어제하룻동안 또는 오늘 왼종일 반신불수된 자긔어머니의 존재를이젓든것을 깨다럿다

자긔가 제아들을위하야 자긔의어머니까지 이젓다면 영섭자긔를 기른 어머니는 자긔를위하야 얼마나만흔 희생이 잇섯슬가하얏다

그는 거는방미다지를 여러보앗다、어머니는 줌으신다

언제나 유모가깨끗치 치워둔는 그방、깨끗한어머니의요

그는 유모가 그북새통에도주의주도하게、착실하게 자긔의병신어머니를 돌보아드리는것이고마웟다

『저런녀자를 실라고 리혼한놈이잇스니……』

하고 혼자시말로 뇌이고 제방으로갓다

유모는 일섭의 엽헤 드러누어잣다 그팔이 여나업는 친자식 친어머니의 사이가랫다

인긔척을 드른 유모는 벌덕 이러낫다

『이를 엇저나 아이아버지께서 드러오시는줄도 모르고 잣네』

유모는 눈을 부비며 이러섯다

『아닙니다 그대로 주무시지요 저는 아랫방에서 자지요』

영섭은 방을 나가라하엿다

천만에 말슴을하시네 이방주인께서 딴방에서 주무시다니 이따가 애기가울든지하면 저를 깨우서요』

유모는 나아갓다

영섭은 다시사라난 아들을 물그럼이내려다보다가 빙그레ㅣ우섯다

◇

어느일요일――유모차에 일성이가 우유적꼭지를물고 젊은아비영섭이가 차를미는대로 아카시아의길을 간다

백화점에서사온 양복을 입은 일성이는 옷에반사된 햇빗때문에 눈이부시여서 깜바 거리며 물도안나는 우유젓꼭지를 빨면서 두리번거린다 영섭이는 오래만에 휘파람이나왓다 오늘의 영섭에게 병이잇다면 아죽도안해를 잇지못하는병밧게는 업슬것이다 (끗)

★曆★

六月十七日(水) 舊丙子四月小(廿八日)

庚午·土·參·建

◐[illegible]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땀에밀니지안코 벗꺼름을防止!

언제나새로바른 거와가티新鮮!

吸收性이잇스므로써 땀 脂肪에밀니지안코추하게번쩍이는일은업습니다……

×

微粒細粉이어서 잘밧고·잘펴서…… 차분차분하야 그立體氣品의 丹粧美가나타납니다

×

紫外線을막음으로 자연볏꺼름豫防이 됩니다……

×

肌色 濃肌 오ㅣ클은 綠陰에相應되는빗입니다낫빗은艶潤하여뿌라운으로보입니다

肌色 白色
濃肌色 나추렐色
健康色 오ㅣ클一號
부룬 오ㅣ클二號

東京·久保政吉商店

ウテナ粉白粉 8色

우데나

古書解題(續)
「農家集成」(中)
方鍾鉉

다음으로 印本에는 記錄이 업스나, 내가 가지고잇는 寫本에서 아래와가튼 두가지 새事實을 알수잇스니 그하나는 農家集成後敍를 洪枻世가 쓴것이요 다른하나는 이책 完山重刊事實을 翁潑逵이 記入해노흔것이다 몬저 洪氏의 後敍부터 參考하면

農事直說粹于公山也 余旣有懶猥之罪荒廢後添以衿陽雜錄四時纂要舞以勸農 敎若文而敎伯申侯活仲甫令公以余添集開刊刻之意託潛印 洛陽以晝敍顚末余受以卒業復于申侯曰……

이와가티 農事直說이 公山에서 그以前에 벌서 刊行된事實이 잇는것을 알수잇스니 이洪枻世는 그때에도 이책에 敍文을 쓰고 잇다 그後에 다시 申洬의 所撰인 農家集成에도 그敍를 쓴것이니 그年代는 乙未季秋望日이라고하엿슬뿐이므로 이것을 申洬이 쓴跋文年代와 比較하면바무間年인것이 分明하다 왜그런가하면 洪枻世라는사람의 事蹟을 調査해보아 알수잇스므로써 이다(註一)또 그重刊事實이라는 것은 亦是 印本에는 업는것으로서 寫本에만 記錄되어잇스므로 疑心할수잇스나 그러나 이것도 前者와가티 否認지못할事實이證明하고잇는것이므로 이것을 여기에 한번 들어論해보고저하는 바이다 이제 그原文을 보면

今年春甁安 實公州牧使申洬所上農家集成冊下送矣此冊旣數不多開刊不能廣其開刊印出廣布民間以示朝家務本勸農之意 臣謹文印篇布於畝 毘上務本勸課之意至矣

이글을 보게되면 申洬이가 農家集成을 編纂하야 朝廷에上呈한것을 알수잇스며 이책을 다시 朝廷에서는全羅道觀察使에게 令을 나려 下送하야 開刊廣布 식히기에 이를 記事한것이다 申洬이가 撰成한 年代는 그跋文에 乙未季秋望日이라고하엿고 洪枻世가 그後敍를 쓴것은 乙未季秋望日이라고하엿스며 孝宗實錄卷十五第二十三張에는

癸未公州牧使申洬進農家集成書 命賜虎皮

이라고 써잇스니 이것은 바로 孝宗六年乙未(西紀一六五五)十一月癸未日이것이다 그러고보면 孝宗乙未年에는 그여름에책이되고 그九月보름날 敍文이 되엇으며 또 그十一月癸未에 朝廷에 進上된것이 分明하다 그러면 이책이 일단 朝廷으로올라 갓든것이 다시 全羅道로 나려가게된것이니 이런事實이 全羅道의記事에 依하야 明白하다 그러나 全羅道이라는사람이 果然 그當時사람이며 또 그때사람은 되지마는 上記한것과 틀림은 하엿는가 하는疑心이 안생길수업스나 그것은 그사람의 事蹟을 보아證明되는것이다(註二)

다음으로 이책의內容에 드러가서 考査하게되면 무엇보담도 몬저 우리에게 貴重한資料로 주는것은 農事에 使用하는物名을 漢字로써 그鄕名을 表示한것이나 例하면

耕耗…鄕名曰所訖羅
木斫…鄕名曰所乙古

六月創作評 【九】
完全한性格의表現
作家의人生觀의確立
朴英熙

『情夫』李石薰作 (女性六月號)

香心이라는 妓生과 칠이라는 사나히의 戀情이 이야기의 줄거리다。哲이는 칠이대로 妻子가잇고, 香心이는 香心이대로 또 남편이 잇는몸으로 서로 戀愛의 너그럽지 못한 享樂을 그린作品이다。

作家는 어느때나 眞實한 誠意와 藝術的探索에 그 良心을 기우리는듯십다。濫作을 삼가는 作家인듯 십흐며, 그런까닭에 그의 作品은, 차근 차근하게, 무엇이고 完全히 表現코자 努力하는듯십다。그의 文章은 淸新하고 語彙도 할수잇는대로 끌어내서쓰려는 態度가 보인다。어느때는 感覺的인 文章에 趣味를 끄려내는때도잇다。

『힘주지 안코 노흔 기다란한 손끗、그백어가튼 두손가락 사이에 가볍게 끼인 담배에서는 파—란 연기가 실실히 피어올은다』라든지、『그 손을 입에가저가고 놉고 할적마다 양손가락에 낀 흰 다이야 반지가 전등을 반사하야 머언 밤하눌의 별가티 뻔짝이엇다』라든지 『파—란煙氣』라든지 『별가티……』와가티 感覺的形容詞에 努力 하는듯십다。

作家는 이『情夫』에서 妓生의 表面의 생활을 그리려는것 보다도、사람으로서、女性으로서의 그 內面 心理의 微妙한 變化를 집어내려고 하엿다。그러한 까닭에 이 作品은 猥褻한場面이 잇는대신에 오히려 가는다란 한줄기의 哀愁가 흐르고 잇다。敎刷한 咀呪와 보드라운 反抗이 구석구석이 끼여잇다。

나는 이 作品에서는 다른 作品에서와 가티 作者의 人生觀이나 社會觀을 차지려지 안는다。흑이 다른 作品에서보면 作品이 形成되기前에 먼저 主觀的宣言이 急하고 生活이그려지기前에 먼저 人生觀의膨大한 哲學이 뭉숙내미는수가잇다。그런作品評은 무엇보다도 먼저人生觀에 論及하지 안흘수업스나、氏의作品은 그러한 傾向이 殆無한대신에、技巧와機智의 날카로운 世界가 따로이 展開되는것이다。氏는 人生을 社會生活에 結付식히려는것이 아니라 人生을 獨立된 心理的 叢林속에서 分類하려는듯 하다。

여기 까지 쓰고보니、約束한 紙數가 超過되므로 不得已 筆者의 本意는 아니나 以下 作品評은 좀더 簡單한 印象에 끄치려는 것이니、特히 作家 諸氏의 諒解가 잇기를 바란다。

『十年後』李箕永作 (三千里六月號)

一 自由主義的 青年의 苦惱를 그린 作品이다。十年前에는 金鑛판에서 맛난 두靑年이、十年後에는 한사람은 印刷職工으로、한사람은 雜誌記者로 되여서 偶然이 印刷所에서 相逢하엿스나 職工은 自己스스로賤職이라고 생각하고 친구 이엿든 記者와 間隔이 잇게 하는것을 記者인 친구는 煩悶하는것이다。

氏는 獨特한 演譯的 文章의 所有者며、諧謔的對話와 巧妙한 語彙를 使用하는 農民小說家다 그러나 이作品에서보면 그題材라든지 構想이 普通程度를 너머서지 못하엿다。물처럼 흘너가나 波瀾이 업스며 感慨하나 가슴이 압푸지안코 諧謔이 잇스나 배창자를 찌르는 맛이업다。近間 氏는 長篇에 힘을쓰는모양인지 短篇小說은 大槪가 普通作品이다。이번作品도 亦是 그러타。

『蠅群』宋影作 (三千里六月號)

近間 氏의 小說은 만히發表되는듯십다。그러나、나는 이作品이 처음이다。氏는 力量잇는短篇作家로 또는 때로는 奇想天外한『유모리스트』로서 그길을 닥거온 作家임은 周知의 事實이러니와 내가 그러한 期待로서 이作品을 읽을때에 문득 나의 所望은、多少 어그러젓다。

이번 作品에 限해서는 無聊한 文章、錯雜한 構想이 읽은 사람의 머리를 眩亂하게 하는듯하다。三十年동안 郵便 配達夫의 內面生活、外面生活、郵便局內의 內面、아들의 生活等實로 무엇하나 完全히 描寫되여잇지안는듯 십다。短篇小說인좁은 領域을 所有한 이 範圍에서 이러케 여러가지가 머리를 들게 되매 맛당이 어지러울일이다。이것은 剪定아니한 果樹와가갓다。한個라도 巨大한 完全한 果實을만들기 爲해서 餘枝를 剪定할必要를 늣긴다。平凡한 作品에서 力作을求하는데는 맛당이多作濫作을 삼갈것이라고 나는勸하고십다。

『溫泉場의봄』朴花城作 (中央六月號)

열아홉살 먹은 어엽분 녀자 그러나 薄命하야、남편이 팔어먹어서 늙은부자의 愛妾이되엇다가 逃亡하는 가엽슨 한女性의運命을 그린作品이다。내생각에는『春宵』評은 좀 못한듯하다 임이『春宵』에서 氏의 作風을 말하엿기에、이에蒼卒한 筆致로 再論할 必要도 업거니와 氏의 作風의 發展은『洪水前後』에 比하면、훨신 人生探索의길로 드러가는듯 하야 作品은本格的으로 構成되여간다。冷靜한 筆致、客觀的 觀照가作家의 本來의 미듬직한 信念을 재촉한다 이作品도 그다지 遜色업는 作品이다。

『髑髏』鄭人澤作 (中央六月號)

題材는 아조 平凡하야朝鮮人의 東京生活을 그린것이다。文章으로말하면 거칠고 뚜벅뚜벅하다。그러나 끗까지 읽지안코는책을 더플수 업는것이다。이곳에는 野性的 堅忍性과 深刻한描寫의 魅力이 읽는 사람을 잇끌고 간다。女性的인데 魅力이 잇스면、男性的인데는 더욱 魅力이 잇다。뚜벅뚜벅 거러가는 발자죽소리에는 어딘가 무게와 미듬과 갑피가 잇는것처럼 이作品도 그러한 一面을가지고 잇다。이 作品은 變態할지언정、결코 蕪雜하지는 안타。

『鼅鼄會豕』李箱作 (六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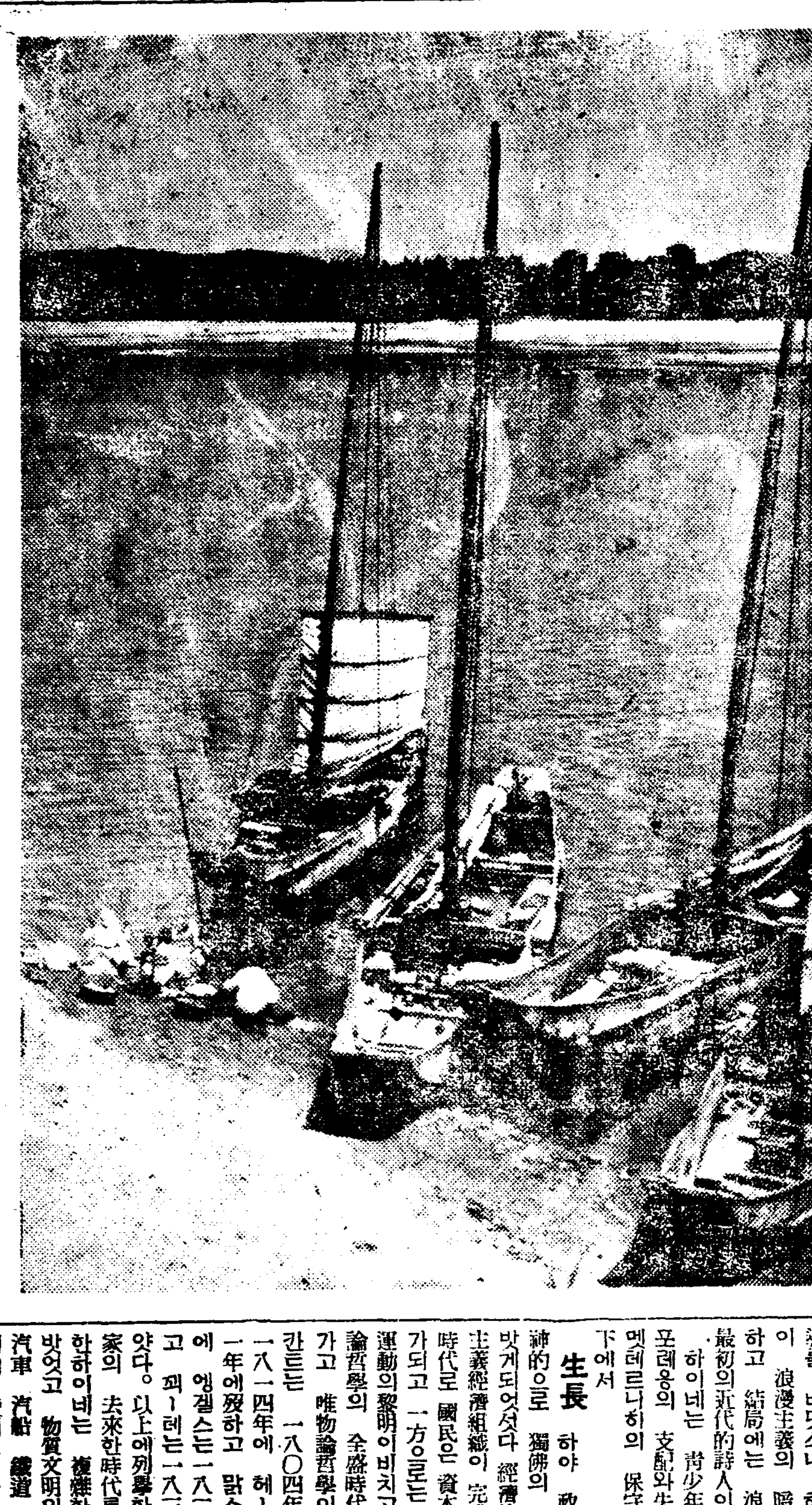
이作品은 六月創作中、아니그보다도 朝鮮文壇史上 그라 하지 안케 難解의 作品이다。作者는 通俗的 或은 世俗的인것이나、그보다도 正規的 藝術에 厭症을 내는모양이다。好意로서 생각하면 作者는 獨特한藝術의 境地를 開拓하려는 듯하다。그것은 조타。가령 百年後에야 氏의 作品이 理解 된다고하드래도、完成만 된다면 훌늉할것이다。그러나 이 作品에서 보면、氏가 새로은 獨特한 境地를、開拓하려는듯하게는 보이나、그實 나보기에는 完成되지못한 習作가티 생각된다。또한 이作品에 對한 나의感想은、이 短評에서는 말할수업다。좀더悠長한機會를 엿보려고한다。如何間 어떠한 길이든지 한번 擇한길을 完成하도록 努力하기만 心祝한다。

×

오래간만에 諸氏의 作品을 읽으니、그동안 朝鮮文壇의 傾向을 새삼스럽게 찻게되며、또한 그 傾向이 變한데 마음이 갈라지 안흘수업다 온갓 苦惱의 길을거러오고 또한거러가는 朝鮮作家는 深刻한 人生의 全面을 觀察하며 그 主人公이 人間으로서의 完全한 性格의 一面을 表示하려는 努力이 기퍼간다。그리고 그다음으로는 作家의 人生觀의 確立이다。지금도 이것만은 퍽不足한 感이잇는듯 시펏다。이에關해서는 이곳에서 言及할수 업는故로 다른機會로 밀우고 끄트로 或時濫評이 잇섯슬까보아서 두려움을 말하려하는바이다。(끗)

漢詩
綠陰 押鶯
佳作 二 龍江町 金文應

淡掃紅粧綠態成
風光變幻遠凝晴
依依古渡烟初合
寂寂空林雨乍晴
槐蔭庭心留䮞馬
柳收金色付流鶯
且從芳草携壺去
爭似看花頃刻情



浦口의小閑 —麻浦所見

懊惱의詩人
하이네研究 (三)
徐丙玨

修學과伯林生活

商業과 戀愛에破産한 하이네는 叔父의勸告로 一八一九年가을에 본市(Bonn)로가서 辯護士가되려고 本大學에入學하야 三年가을까지 法律을修學하얏다그러나 無味乾燥한 法律研究에는 興味를 갓지못하고 獨逸文學과 語學을 聽講하고 古獨逸을 特別히 研究하얏다。當時獨逸文學界에서

名聲이놉든浪漫派의 驍將이든 요본大學의敎授이든 아우구스트 빌헬름·레—겔(A. W. Schlegel)의文科講義를 熱心히聽講하고 함부룩의叔父에게 寄寓하야잇슬때부터 詩作을하든하이네는 (레—겔의指導와 獎勵로因하야 意識的으로 詩作을努力하고 一八二〇年녀름에 最初의小論文『浪漫主義』(Die romantik)를 發表하야 文學界로의 決定的前進의 意思를表示하얏다。이論文의內容은 浪漫派의 遺産의 無條件繼承을 否認하야 自己의主義의基調를 明示하얏다。그러나 根本的으로는 浪漫主義에서 完全히 解脫하지못하엿고 當時의文學思潮도亦是 浪漫主義의 爛熟期이엿다。浪漫主義者 레—겔의 指導를 바덧스나 하이네는 일즉이 浪漫主義의 暗黑面을 知悉하고 結局에는 浪漫主義를버린 最初의近代的詩人이되엿다。

하이네는 靑少年期에잇서서나포레옹의 支配와失脚 다음에온 메테르니히의 保守專制主義의治下에서

生長하야 政治的으로 獨佛의 二元的支配를 精神的으로 맛게되엇섯다 經濟的으로도 資本主義經濟組織이 完成에 接近하든 時代로 國民은 資本과機械의奴隷가되고 一方으로는 近代社會主義運動의黎明이비치고 思想도唯心論哲學의 全盛時代는過去로도라가고 唯物論哲學이 擡頭하얏다 칸트는 一八〇四年에 헤—겔은 一八三一年에死하고 맑스는一八一八年에 엥겔스는一八二〇年에誕生하고 괴—테는一八三二年에 死하얏다。以上에列擧한 偉大한思想家의 去來한時代를背景으로生長한하이네는 複雜한思想의支配를 밧엇고 物質文明의 黎明期로서 汽車 汽船 鐵道 寫眞等의 劃期的 發明도 하이네의 生存中에遂行되엇다。

一八二〇年가을에 본大學을退學하고 꾀팅겐(Gottingen)으로 가서 꾀팅겐大學에서 亦是法律研究를目的하고入學햇스나 古獨逸研究에從事하다가 學生과의決鬪로因하야 放校處分을바덧다。同年에

戀慕하든 從妹아마리—가 約婚하얏다는消息과 父母의生活이不如意하다는 消息을들어 失意의生活을 繼續하고 잇스면서 制作한것이 悲劇『알만조—ㄹ』(Almansor)이다同年末에함부룩 以來時時로發表한詩稿等을收集하야『꿈과 노래』(Traum daub lied)라는題目으로 出版하려다 書肆의拒絶로 失敗하얏다。

不快한記憶을남기고 꾀팅겐을떠나 一八二一年初에 伯林에到着하야 法律研究를 完成하고자 伯林大學에入學하얏스나 結局은 文學을專攻하고 헤—겔哲學의影響을바든바不少하얏다。二年間의 伯林生活은 하이네에게 重大한 意義가잇섯다。當時伯林의精神的 社交界의 中心인『라헬』의 家庭에 바른하—겐(Varnhagen)의 家庭에 出入하야 集合하는當代 有數人士들과 交際할機會를 갓게되엇다。그랍베(C.D.Grabbe)샤밋소—(A.v.Chamisso)호프만(E.T.A.hoffman) 等當時의 文壇大家들과 接觸하야 放縱한 生活을하든동안에 하이네獨特한 諷刺精神도 生長하얏다。그러나이러한 會合에서도 猶太人이라는

理由로 蔑視를밧고 除外를當하얏다。元來 猶太人은團結意識이薄弱한個人主義者이다。自由解放運動을支持하는 하이네도 自己의安樂을圖謀하는 利己主義者이엇다。그러나 現實에서밧는 差別待遇에 猶太人의 社會的地位平等을 絶叫하지안흘수업섯다。伯林에在中에도猶太人의 敎化와解放을爲하야設立된 猶太主義藝術科學協會에 參加하야活動하얏스나 無知한 猶太敎牧師의 支配를밧는 猶太人大衆의 沒理解로因하야協會도 解散되엇다。伯林서 多彩한 社交生活을 하든동안에 二篇의悲劇과『靑春의悲哀』『抒情中間曲』을 完成하얏다。하이네는 專攻하는學業은 完成하기도前에 이미人氣詩人의 列에參加할만치 詩人으로서 完成의域에 到達하얏다。

三、『靑春의悲哀』(Junge leiden)

一八二二年初에『노래의冊』(Buch derlieder)의卷頭에編入된『靑春의悲哀』가 出版되엇다。一八一七年부터 一八二一年까지 五年間의 作品集으로 死刑執行人의 孤兒요 제파 從妹아마리— 아마리—의 季妹 테레—제의 三女性과의 不幸하든自己自身의 戀愛記錄이다。遊戲的感傷과 作爲的苦惱가 多分히 包含되어잇고 全篇에흐르는 氣分이 너모나 浪漫的이다。가장 오래된『夢像』(Traumbilder)에는 現實에서 滿足한成果를엇지못한戀愛를 꿈속에서 求하라는 幻想이描寫되어잇다。『夢想』다음에는『小曲』(Lieder)이 排列되엇다。『夢想』에 浪漫的怪奇와 幻想이充滿한데比하야『小曲』에는哀調가흘른다。

海外短信
「쇼—」의新作 「쥬네—브」

【로—돈發同盟郵信】『쪼—지·버—나—드·쇼—』는 最近 布哇米國『멕시코』의 旅行을 마치고『로—돈』에도라왓는데 氏는 聯盟의活動에 着想을어더서 新作『쥬네—브』를 씨겟다고 出迎한 記者에게말하엿는데 以下는 翁의談話—

『批評家들은 이劇에對해서 이것이 演劇의脚本도 아무것도아니다 다만 그가聯盟의首領들과 會談하고 어든結果를『라이프』에 두다린것이다라고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모擔念업시 發表하겟다 다만 上演까지는좀 뒤를이어서 더써너케다 생각컨대니까。』

그리고翁의最近作三篇은 一卷의冊으로되어『로—돈』서出版되엇는데 이劇에對해서 翁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카레—의市民』은다만 作家에게彼等의 技能을 發揮할機會를준것이라고하는 以外何等의意味도업는것이다『期待되지안는섬에의旅行』은寓話劇도 아니고 悲劇도喜劇도 아니나同時에此等만든것을 한데뭉친것이다 最後에『百萬長者』는『조존』이 지금 세상에 살어잇다면 이러케 쓸것이다 고생각되는『유—모어』가 豊富한 性格喜劇인데 내가 富豪에 對해서 무슨說敎나한것이라고생각해서는 아주틀린생각이다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臨床醫學의機能과
醫療制度管見 ③
李鶴松

診察을지나 一旦治療에 드러가면 이런種類의 現象이 더욱深刻化한다、治療에도 藥物的 治療外에 手術 或은特別한 物理療法等을 利用하려면 不少한 支拂力을 要한다。그럼으로 그

效力의 適確을 알면서도 다시말하면 그러한 經濟를 要하는 方法이 그疾病을 治療할만한 充分한 機能을 가지고잇스면서도 經費의 關係로 그方法이 利用되지못하는까닭에 그機能을 發揮하지못하게되다。이와反對로 醫學的理論 或은 經驗으로보와 確實히 奏效할方法을 利用할지라도 그方法의 機能을 完全히 發揮하기 어려운것을 볼수가잇다 卽結核病患者의 轉地療養 或合理的療養院治療를 行할때에 萬一 그患者가 理想的療法을 밧기爲하여 支拂能力을 考慮치안코 無理로이治療를 밧고잇다면 將次올 經濟的危機를 想像하고 恒常 焦燥한心理狀態를 反覆할것이다 이러케되면 모처럼 利用한 合理的의療法은 도리여 治療에 조흔影響을 주지못할것을 잘알게한다 다시말하면 發揮할機能을가지고잇는 조흔療法일지라도 患者의 支拂能力이 적은 까닭에 그機能을 完全히 發揮치못하는것을 如實히 表現하여준다

醫學은 日就月長의 勢로 發達을 繼續하는 反面에 醫師와 患者를接觸시키는 醫療制度는 不變的形態를 保有한다면 上述한 現象의幅이 漸漸擴大될것을 容易히 推測할수잇다

그現狀과影響

完全한 現代的診療를 利用하지못하고 所謂 輕費診療로 不完全한 診療를 밧는것도 社會保健上 多大한 惡影響을 줄것이나 이보다도 支拂能力의 低下로 醫療와 全然無緣狀態에잇는사람의 數가 漸漸增加한다면 社會 或은 國民의 大部를 占領한 大衆의 保健이 形言할수업는地境까지 이를것이 아닌가한다 이러케되면 社會的 不安의根抵가 더만히 釀成될것이아닐가? 肉體 或은 精神의『에네—지』를 商品으로하는 그이들의게는 營養은 勿論 休養

治療等을 누구보다도 必要할것이나 이런사람일사록 또는『에너—지』의 消耗가 크면클사록 生產能力이 低下하는 까닭에 營養休養等을 滿足히 할만한生產을 할수가업다 다시말하면 이런사람은 疾病에 걸리기쉬운 狀態에잇슬뿐만아니라 疾病의 治療를하기어렵게된다 이러한 關係로 疾病治療에 迷信의利用、野蠻한民間療法의濫用 不良한賣藥의 誇大한 廣告等 大衆을 一步一步 不安에 接近케할것이다。

結言

仁術인 臨床醫學의 機能發揮는醫學自身의 發達에依할뿐만아니라 患者의支拂能力을 支持할 生產能力과도 關係를가젓다 이에對한生產能力을一層에 如何히 할수업는限 이에對한 理想的醫療制度를 發見하는것이 必要한 줄生覺한다。

이것은 醫學을 研究하는 醫學者 或은 臨床家의 손에서開拓되는것보다 다른 神學 卽政治 經濟 社會學等의 寄與가더욱 必要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數年前臨床에 從事할때에어든 片感을적어본다。그럼으로 아무統計的事實을 提供치못하는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이것은 一斷의傾向이잇는듯하나 日常經驗하는 臨床家의一致되는所感이아닐가한다。

讀者社交室

▲崇仁町姜氏에게 先生宅에下宿할房이잇다니 마음에맛다고生覺하시거든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옵 醫專生과京師五年生이온데 집이며집周圍가깨끗하고 下宿營業이아니며 家族과가티待遇해주시면조켓슴니다 家族狀態며番地와大略位置를아리켜주시면感謝하겟슴니다
府內仁義町十二番地 鄭永述

▲四月三十日夕刊에問議하신慶南新隔邑內讀者、당신의몸은신것은 六月十九日에 該當하외다 또長篇要求生、당신의몸은신것은三月二日에 該當하외다、太歲、月建、日辰、亥時는아직研究未及이올시다 (L、C、K生)

▲小生은多年間 胃病으로苦悶하는二十一歲의 青年이온데 今般夏期精神轉換의뜻으로 轉地療養을하려 三防、釋王寺 元山東海北部線各地로 巡遊할뜻을가젓는데 혼자서로는 외롭고 심심함으로 或가튼環境에잇서 同僚로가티 修養가실분이게시거든相議를 곳알리워주셧스면 日字는只今부터여름끗나기까지
京城樓上町六七番地 李寅鎬

▲本人은某專門學校在學中이온데 엇든분이家庭敎師로써주실분은社交室을通하여 아르켜주시요 곳訪問하겟슴니다(府內S生)

新刊紹介

▲農民生活 第七週年記念特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朝鮮情報 第一號發行所 京城府林町八二 朝鮮情報社 定價一個月五十錢
▲朝鮮商工獎勵館報 第二十九號(月刊)發行所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朝鮮商品調查研究會 定價一部十錢

連載野談 (四一)

布衣記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이잔만은사양 (一)

한갓 푸른 하늘빛은 지극히맑은 바람결!。때。정히 세월한 긔운이 돌에 숨어드니 선비로서 맛당히 도웁을 갓가히할 도깁흔 가을절기!。

이때 검소년은 나라사긔(國史)를 정성스럽게 보와가든것을 그대로 놋코 창문을 훨신 여러재긴후 송악산(松嶽山)푸른 송림을 바라보다가

『아아。거룩한 저송림!。우리나라 태조(太祖)께서 장차 이조국。고려(高麗)를 세우시려할때 롱하나이 새로낫스니 그롱이 몸둘고운 깁고 넓은 바다속이아니오 놉고 웅장한 푸른 숲속이어니。곳 푸른숲을 맨들라는 대몽을 깨신뒤에 씨를 뿌리고 싹을 갓군 저송림! 저송림은 우리조국의 억만년 긔초를 다듬는 청룡사로써 숨고 갓구게된 송림! 과연 거룩한송림!』

하고 그송림을 바라보면서 방금 정성스럽게 보든 그나라사긔의 긔록을 빗추어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자어냇다。

그리다가 김소년은 다시 몸을 도사리고 마음을 한데 모흔뒤에

『아!죽은 일홈!。산 일홈! 내가 그렇저렁 살다가 죽는때는 내뼈가 썩고 내살이 썩을때 내일홈도 죽은일홈。그러나 내가 대장부로 태어난 보람이잇게 살다가 죽는때는 비록 내뼈는썩고、내살은 썩어도 내일홈은 산 일홈。그래서 저 억만년이나갈 송악산 푸른송림의 빗과가티 내일홈도 오래、오래 산 일홈이 되여야할 내일홈!』

하며 검소년은 이에 훌넓과 나무등걸과 함께 명색업시 썩지아니하려는 큰 뜻을 움지기엇다。

그런데 붓을 잡은 문신(文臣)이되어서 그뜻을 일울가。칼을 잡은 무신(武臣)이되어서 그뜻을 일울가?。

그는 여 무갈내길중에 어느길을 걸어가야 맛당할는지 그 장차 걸어가려는 길을 찻기에 마음이 씌엿다。

이와가티 검소년은 여러가지로 몸을 세우고 일홈을 날닐도리를 생각하다가。

『웅 이몸은 이것저것 다버리고 칼을 잡고 말을 달니는 몸이되고。그몸으로서 나라의 방패가되고 성이되어야할 이몸!。』

하면서 장수가되여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그뜻을 펴보리라 결심하얏다。

대저 고려국(高麗國)은 왕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뒤 전날의폐풍을 업새고 또는 착한정치를 행하야 국력(國力)과 민복(民福)을 기르기에 힘을 쓸새 더욱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할것으로 국책(國策)을삼고 우선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거란(契丹)을 대항하기에 정신과 재물을 아울려 튼튼히 하기를 마지아니하얏다。

그런데 왕태조께서는 그 크나큰 경륜을 모조리 일우시지 못하시고 승하하신것은 퍽이나 한되는일이다。

그러나 그뒤 대대를 이으시는 왕자왕손이 모두 태조의 정신봉 바뎌 혹은 군사를 기르고 혹은 지나(支那)의 새로 일어난 송나라와 교제를 힘쓰든바 태조시대로부터 약사십년을 지나서 그 네재 임검이 되시는 성종(成宗)왕때에 니르러 비롯오 여러가지의 제도가 잘 정돈되고 딸아서 나라의 면목이 새로워졋다。

그런데 나라의 정세를 좇아보지 아니하고 다만 지나의제도를 그대로 본을 떠서 쓰게되것이 안으로 새 폐단이 되엿고 또는 고구려말년에 그서쪽에잇는 요수(遼水)상류에 웅거하든 선비(鮮卑)의 일족이 거란이란 나라를 세우고 또한발해(渤海)의 속민(屬民)이엿든말갈(靺鞨)이라는 종족이 녀진(女眞)이란 일홈으로 이러나 차례로 나라지경을 침범하니 이것은 박그로 큰 걱정거리가되엿다。

이와가티 고려국은 반도강토를 통일한뒤 겨우 사오십년을 지나 그제도의 잘못으로 안근심이 생기고 외국의 침범으로 밧갓걱정이 생기기 시작한。그중에도 해마다 해마다 그 이웃나라의 침범하는 회란이 더욱심하야 나라가 평안한날이 적고 어지러운날이 만케되매 나라를 근심하는 뜻잇는 선배는 마음잇는 눈물을 거둘사이가 업섯다。

이때 검소년도 개국이래 그 쩌긋쩌긋한 외환(外患)의 긔록을 볼때마다 어린가슴이 쓸아린것을 금치못하얏다。

그래서 검소년은 장차 입신양명할길을 찻는중 단연코 칼을잡고 나라의 간성(干城)이되려는 결심을 하게된것이니 그뜻이 어이 심상타할손가。

映畵企業의將來 (三)

崔章

이런數字로보와 現在日本內地의映畵企業의 發展的趨勢와 映畵에對한 大衆的支持가 얼마나 加速度的으로 促進되고잇는가를 窺知할수잇다。

이리하야 日本內地의映畵企業은 大正元年大日本活動寫眞株式會社(日活)가設立되以後 累年急速한 發展을하여왓고 大正八、九年度의日活의配當은 三割乃至四割의高率에達하엿섯다。近年에이르러 財界一般의 不況과함께 特히 토ー키ー發生에 伴한 製作及上映設備等에對한新資本의投下와 固定資本의 增加로因하야 收益金이 多少減少하고 잇스나 新設備의 完成과 經營組織의整頓으로 映畵企業은 새로운發展의 段階에서잇다。前掲株式年鑑에依하면 日本內地의 興行株價綜合平均指數는 昭和六年十月을基準으로 昭和七年八月의七一、九를 最低로하고 漸次回復하야 昭和九年六月에는 一四四、一의 好調를보이고 잇스며 最近昭和九年九月現在는 一二八、〇이되여잇다。

이리하야 各社間에 激烈한競爭이 繼續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一個年에 二億二千萬名의觀客과 七千萬圓의 入場料를 地盤으로서잇는 日本內地의 映畵企業은 以上에引用한 各數字의가 累年增加하는 傾向을따러 더욱 旺盛히 發展할이라는것은 疑心할수업는 事實이다。

現在朝鮮映畵企業은 따른 産業部門에잇서서의 狀態와 한가리 아니 그에比할수업도록貧弱한狀態에잇다。朝鮮의 映畵事業은 生産的方面은 거이全無라할수잇고 다만 消費的方面만이 多少의活動이 持續하고잇다。

朝鮮에잇서서의 映畵製作機構는 二、三年前까지 個人이나會社를勿論하고 固定的基礎에선것이 하나도업서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며 今年에 이르러朝鮮內 各地에 二、三個의 映畵製作所가 創設되엿다는 所聞이 잇섯스나 對外的으로 낫타난그活動은 極히 微弱하며 아즉繼續的으로 映畵를 製作하도록 完全한 設備를가진것을보지못하는現狀이다。

過去의 朝鮮映畵事業은 一部進步的分子들의 所謂이데오로기ー映畵製作을 除外하고는 放蕩한富豪子弟들의 無意味한 遊興에不過하엿다。따라서 이事業에는 매양製作資에困難하도록 資本이缺乏하엿고 映畵의 企業的發展이란全然생각밧게일이엿다。이리하야이事業에 從事하는 子들의人間的墮落이 社會非難에 올넛고技術的進步도 이에 因하야 대단히 阻止되엿다고 할수잇다。現在 朝鮮에잇서서 映畵事業에對한 社會的評價가 依然히 渺少하며 도로혀 經濟的冷視하고잇는 狀態도 過去 이러한先入觀念이 아즉 만히 潛在하여잇기때문이 아닌가한다。過去千萬이나 過去의朝鮮映畵事業에는事實上 다른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업는 最頹의態度가 퍽도 만하엿다는것은 率直히 告白안할수업다。그리고 또이 映畵事業이 現在 世界어느나라에 比하야 最低의 段階에 彷徨하고잇는것도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前回分 첫머리에 左記와가티 漏落되얏삽기 이에 追加함

英、獨、佛等諸國의 映畵企業은 米國의 그것에 比할수는업스나 各各相當히 發展하야잇고 토ー키의發生以後 米國製作品에 比하야 훨신優秀한 自國作品을 生産하고잇다。獨逸의 科學映畵 佛國의文藝映畵 그리고 特히蘇聯의 映畵作品은 映畵의實質上의 價値로보와 世界的名聲을獲得하고잇다 主要諸國의 一年間映畵製作本數를 記錄하면 獨逸約二百本 佛國約百五十本 蘇聯藝術映畵三十二本 學術科學映畵百本(一九三四年)中國 百本(昭和十年)等이다

그리고英國의 映畵雜誌『자・시네마』의發表한統計에依하면一週間의映畵觀客의數爻는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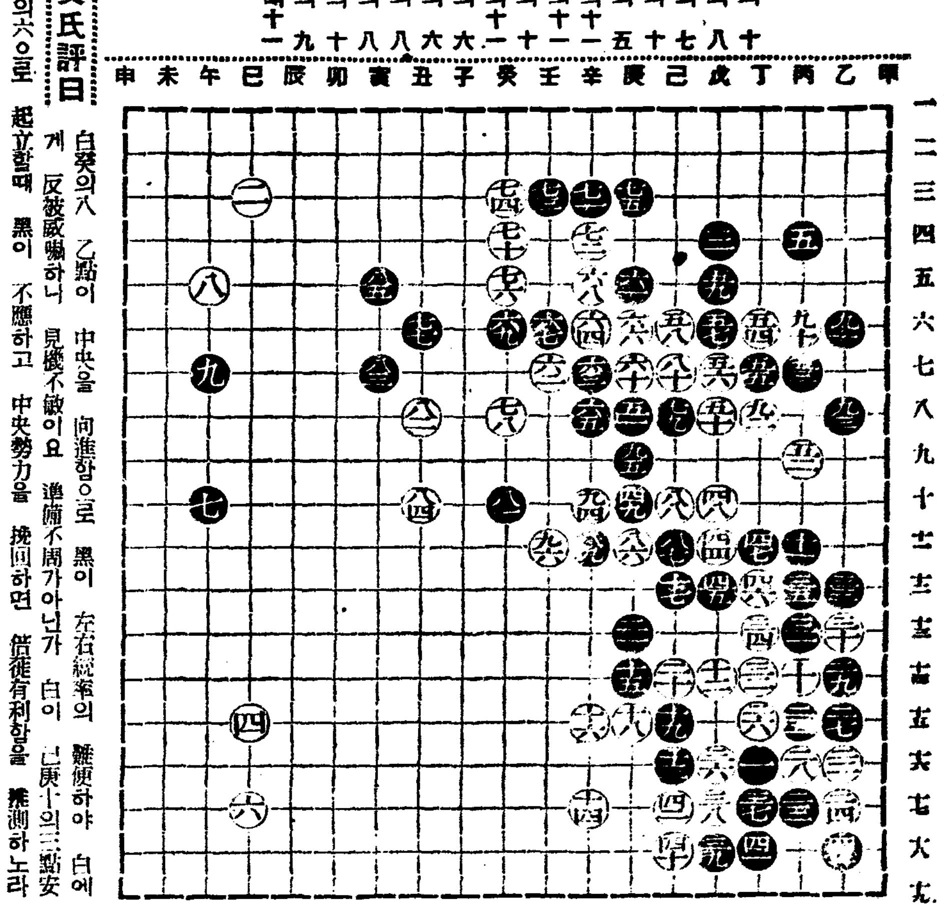
	米國	英國	獨逸
(單位千人)			
常設館數	一五、〇〇〇	四、八〇〇	三、五〇〇
人口	一二六、〇〇〇	四六、〇〇〇	六五、〇〇〇
每週의觀客數	七七、〇〇〇	一八、〇〇〇	六、〇〇〇
그人口에對한比率	[illegible]	三九・五%	一〇・五%
一年間觀客의延人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또다른統計에依하면 世界의常設館數는 米國二萬 蘇聯一萬 英國四千 獨逸四千 佛國三千 西班牙二千 伊太利二千 日本一千一百으로 되여잇다。(岩崎昶氏著「映畵와資本主義」)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柳鎭河 / 黑先 丁奎春



● 癸의十 ○ 丑의八 ● 寅의七 ○ 丑의十 ● 寅의五 ○ 庚의十一 ● 己의十一 ○ 己의十 ● 辛의十一 ○ 丙의六 ● 乙의六 ○ 丁의八 ● 乙의八 ○ 辛의十 ● 庚의九 ○ 壬의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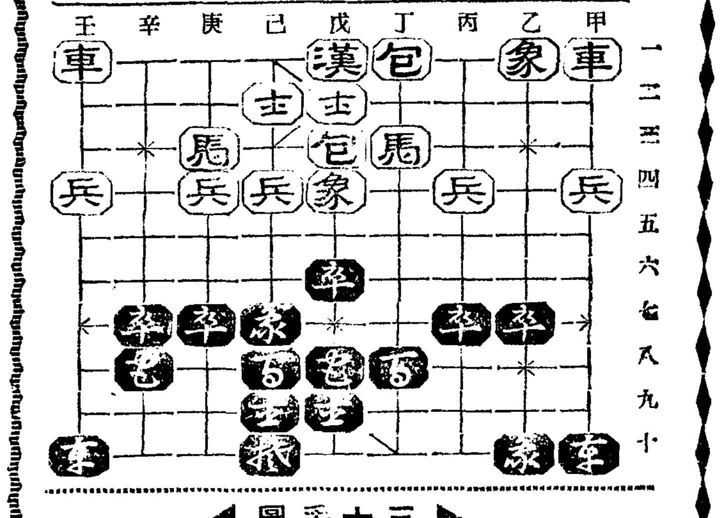
蔡極文氏評日 白癸의八 乙點이 中央을 向進함으로 黑이 左右綏率의 難便하야 白에게 反被威嚇하나 見機不敏이요 準備不周가아닌가 白이 己庚十의二點安保次 丙의六으로 起立할때 黑이 不應하고 中央勢力을 挽回하면 借徒有利할을 推測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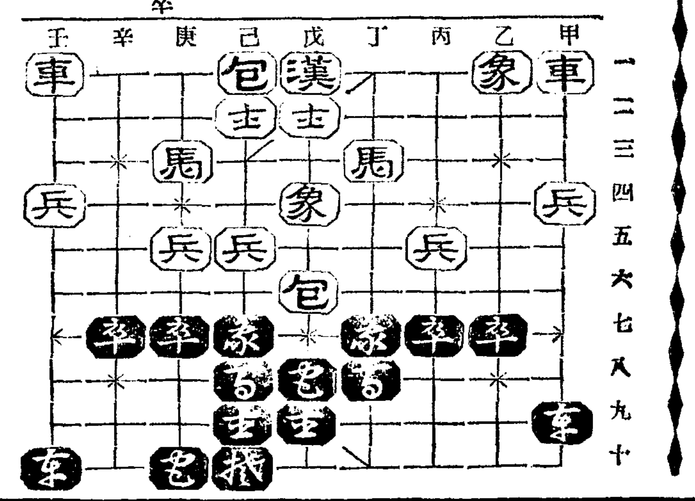
漢 李在鳳 / 楚先手 全于石

◀二十手圖▶



甲十卒ー甲九 / 庚四兵ー庚五 / 戊八包ー戊十 / 己四兵ー己五 / 辛八包ー戊八 / 丁一包ー己一 / 戊十包ー庚十 / 丙四兵ー丙五 / 乙十象ー丁七 / 戊三包ー戊六打卒

◀三十手圖▶



라디오

十六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兒童劇『希望의무지개』全二景 崔秉和、太成均 脚色

—配役—

英姬……姜信任
先生……李雲海
아버지……鄭元根
富順……李玉珠
洞里老人……韓東熙
醫師……崔景得
生徒一……金容順
生徒二……鄭淑孔

伴奏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解說 鄭戊順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牧師 鄭璟運
◇同八時 趣味講演『群衆心理와流行』 金晋燮
◇同八時三〇分 梅花打令外一、달거리 二、적수단신 三、매화타령 四、리별가 五、방연폭포 六、노래가락 李眞紅 細笛 高敬德 崔壽成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悔悟』二景 라듸오劇研究會

金英洙……(學生)……張白水
金元洙……(英洙의父)……李流星
朴 氏……(英洙의母)……崔英純
金喜淑……(英洙의妹)……池順姬
李貞姬……(英洙의戀人)……張仁薰
高秉俊……(英洙의友人)……金仁鏡

效果 朴一松 指揮 李如水

◇同九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다스롬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名姬名唱 나、唱劇調夢中歌 伽倻琴 沈相健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箏曲 宮城芳子外
◇同六時二五分 (大)講演 和田性海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森德治
◇同八時 (熊)俗曲
◇同八時一〇分 獨唱과二重唱 平間文壽 井上계이고
◇同八時五五分 (東)라듸오、코메듸
◇同八時四〇分 (東)三曲 福田喜久外

十七日（水曜）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一、序曲『벤베누ー토첼리니』…베르리오ー즈作曲 二、夜曲六月의밤…깅作曲 三、圓舞曲『永遠의感激』…간作曲 四、行進曲『空軍威力』…海軍軍樂隊作曲 指揮 樂長 內藤淸五 海軍軍樂隊
◇同三時一五分 夏期衛生講座(二)『녀름의飮食物』 衛生試驗室 申德均
◇同五時 野球試合實況『明大對京電』—京城그라운드—
◇同六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우서운재담…구르리트作曲作品十二의六 二、올카、마주르카…벨作曲 作品九〇의三 三、춤추는人形…로ー데作曲 四、귀여운론도…귀릴아니作曲 五、漂浪者의춤…릴히넬作曲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李慶元
◇同七時 講演『言語의發達』 梨專敎授 李熙昇
◇同八時 講演『職業과職業意識』 李晶燮
◇同八時三〇分 雅樂…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羽調三數大葉 四、騷聳 五、牛樂 李王職雅樂部員 指揮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流行歌 全玉 尹健榮 CK管絃樂團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淸歌中『皇城옛나가는데』 金素姬 沈相健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山田巖
◇午後〇時〇五分 라듸오・오페렛타 裴龜子樂劇團
◇同一時 趣味講座 安枝昌夫
◇同六時 (大)連續漫談劇 주座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 岩崎英精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一〇分 (大)詩吟
◇八時二〇分 (東)新講談 伊藤痴遊
◇同九時一〇分 (東)今日의漫談 香島세븐

十八日（木曜）

◇午後零時五分(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貴志康一
◇同三時一五分 法律講座『改正된法律과女性』(二) 金巖
◇同五時 野球試合實況『明大對京城』—京城그라운드—
◇同六時三〇分 童話『금동이은동이』 金尙鎭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史譚『워터루의激戰』 中東 司亭桓
◇同八時 講演『日蝕이야기』 梨花女高 朝球袁
◇同八時三〇分 漫談 申不出
◇同八、三五分(東)베이올린獨奏
◇同九、一〇分 平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개성난봉가 五、방아다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細笛 高敬德 申海中月 崔壽成
◇同九、三五分 短簫와洞簫獨奏 一、散調(短簫) 二、새타령(洞簫) 鼓手 丁元燮 柳東初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六時 童謠獨唱 鈴木美佐保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座 佐藤泰順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長唄 杵屋美乃至外
◇同八時二五分 詩吟 堀切正風
◇同八時三五分 (東)新日本音樂 宮城道雄外
◇同九時一〇分 (東)今日의漫談 香島세븐

CAS—12

이快味

一滴도남기지말고

이삐ー루一本의 榮養價는 鷄卵四個、牛乳三合에匹敵

サッポロビール
アサヒビール

朝鮮麥酒株式會社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눌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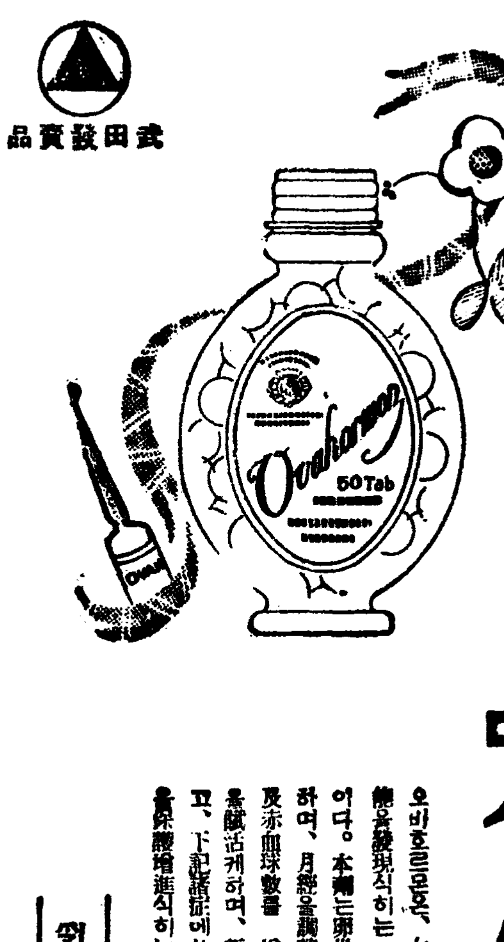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괴롬을보든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꼭하봉마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듯깁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왓사오니 잘뭇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武田發賣品

女性호르몬



月經調整 女性健康增進

國際標準品에꼭一致되는結晶性『卵胞호르몬劑』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오바호르몬은、女性特有의生理機能을發現식히는 卵胞호르몬製劑이다。本劑는卵巢機能을 活潑케하며、月經을調整하야 血色素量及赤血球數를 增加하야 諸機能을賦活케하며、新陳代謝를 놉히고、下記諸症에쓰면 女性의健康을保健增進식히는다。

乳汁의分泌不足에도賞用되는

月經寡少 月經痛
月經不順 憂鬱症
頭痛 耳鳴 腰痛 下腹痛
肩臂痛 發汗 逆上 疲勞
四肢冷感 視力減退 不感症

錠劑(百單位) 二〇錠(一圓三〇) 一〇〇錠(三圓七〇) (五百單位) 二〇錠(二圓五〇)? 一〇〇錠(一圓...)? 特末(一瓦=千單位) 一〇瓦(一圓六〇) 三五瓦(三圓六〇)? 注射液 百、五百、千、一萬、五萬、二十五萬單位あり。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帝國社臓器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六月十五日より六月二十三日まで
三中井吳服店御招待日は二十四日です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女は何故怖い 一・三〇 三・〇〇 七・〇〇
植物の神秘 〇・六 三・二六 七・三二
お夏清十郎 〇・四〇 三・五〇 七・五九

▲女は何故怖い
文化映畵
▲植物の神秘
▲お夏清十郎

浪花館

水電當局食言으로 下碣市民再次蹶起

當此盛夏에 六十餘井戶枯渇

市民大會開催對策決議

【咸興】함남장진군하갈시(下碣市)는 장진강수력전기수로의 굴이 미트로통하기때문에 재작년구월부터 시내에 우물(井戶)이말라서 삼천주민의 음료수가곤란하다함은 루차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동안 시민들은 여러번 수전회사에 교섭하엿스나회사측에서는 수로가 개통하는때는 우물이 다시나온다고 하므로 시민들은 수로가 개통하는 작년시월상순까지 십사개월동안 온갓곤난을 밧으면서 참어왓섯스나 우물들은 의연히고갈한뿐이므로 다시대표자 김창한(金昌漢) 최배림(崔培林)량씨를 파견하야 수전측의 횡지(橫地)씨와에 교섭이 잇게되엿섯스나 구실이만흔 수전측에서는 또엄동인관계로 물이 안나오는것이나 우수기인 금년오월까지 참어주면 물린이시 물이나온다하고 만약이때와서 물이안나오면 영구적대책을 강구하여준다하므로 위선 륙백아동들의 음료수인 하갈공보교(下碣公普校)우물일개소에대한 그동안 급수비로 금삼백원을밧고 시민들은 할수업시 또참어오게 되엿다고한다 그러나 참으라던 오월이도지나서는 아모대책이업슴으로 이에분개한 시민들은 지난십삼일오후한시 신남면회의실에서 시민대회를개최하고 대표김창한씨의 보고가잇슨후 대책을 토의한바 다음과가티 결의하고 십오일대표안시항(安時恒)김창한(金昌漢) 최배림(崔培林)로영원(盧英元)제씨를 파견케되엿다고한다

一、涸渴井戶六十三個所에 完全한 水道施設을 急히할것

二、涸渴井戶六十三個所每井戶에 及水費損害月五圓式計算할것

三、前記兩條件에 不應하는時에는 會社를 相對해서 卽時訴訟을 提起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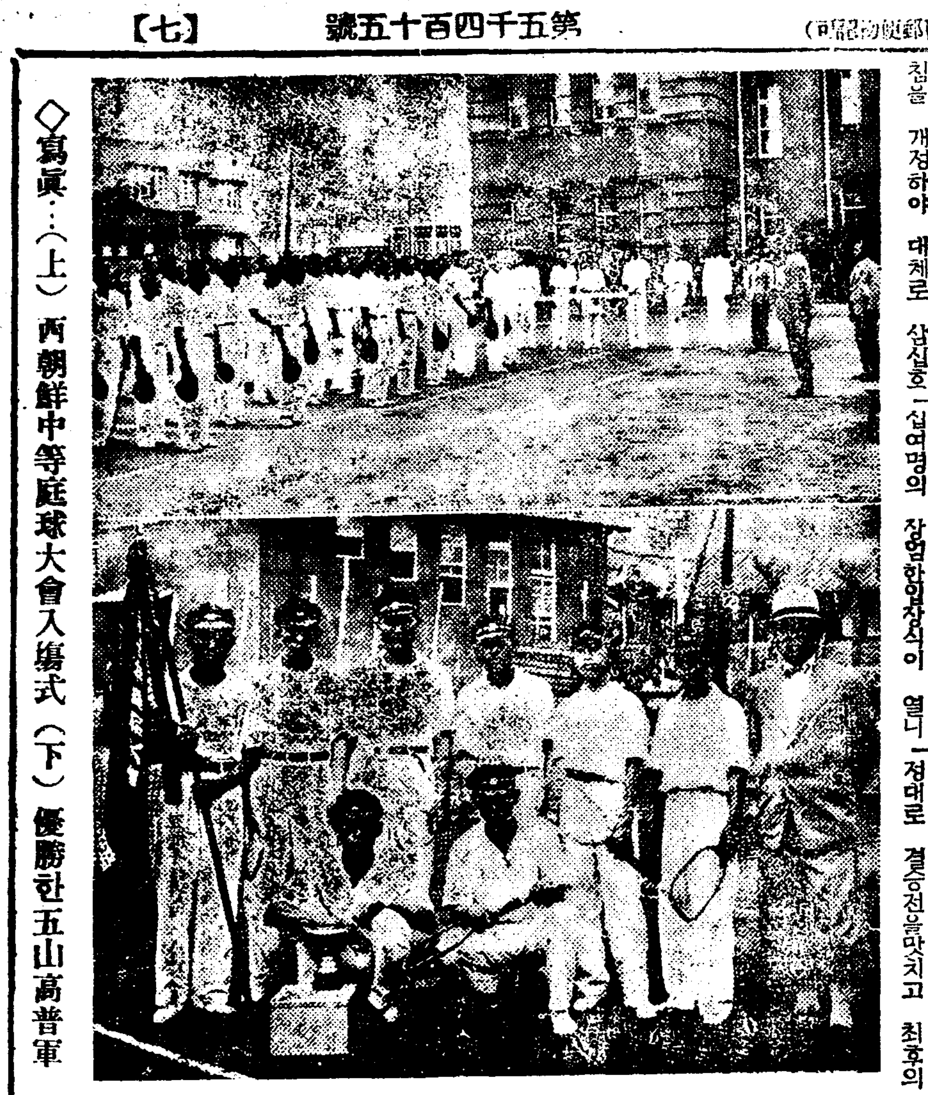
시민대회에서 결의한것은 절긔와갓거니와 하로밧비 완전한수도시설이 업다하면 음료수에공황과 기타사용수에대한 손해도적지안타하거니와 물의에 화재가잇게되면 지화할수업게 된다해서 시민들의 공포는 매우커가는중이라고한다

慶北道內農漁村 負債六千餘萬圓

今後八個年間의計畫으로 道에서新更生策樹立

【大邱】빗에 쪼들리어 헤어날수업는 경북도내 농、산、어촌 농민들의 부채는 놀내지마라오월말일 현재로륙천이백륙십일만 륙천오백칠원에 달한다고한다 그중에 금융조합의 부채가 이백이만칠천륙백삼원이고 은행삼천칠백십이만일천삼백이십일원부진회사 이십칠만오천일백삼원일반질옥(一般質屋)이십륙만구천팔백이십구원 공익질옥(公益質屋) 일만륙천구백 이십삼원 개인사채(私債)가삼백구만이천이백이십칠원에 달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리자(利子)가비싼고리채를지고잇다고한다

이에 경북도당국에서는 농촌갱생책을 위하야 소화팔년도는 일백팔부락 구년도는 삼백구십칠부락 십년도에는 이백오십오부락 합칠백륙십삼부락의 일만오천륙백삼십호를 갱생계획을 수립하엿다는데 금번에종래의 방침을 개정하야 대체로 삼십호단의로 공려조합(共勵組合)을 조직하고 농산어촌의 갱생책을 수립한다는데 금후 팔개년간에 도내 전농가에 완성하고저 준비공작이 다ー되엿다고한다



◇寫眞…(上) 西朝鮮中等庭球大會入場式 (下) 優勝한五山高普軍

十一個校參加로 西朝鮮庭球盛況

優勝은五山高普軍

【平壤】평양의학전문학교(平壤醫專)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의 제사회서조선 중등학교단체정구대회는 예정대로 십사일오전아홉시정각에 참가교

▲新義州商業 ▲新義州高普 ▲寧邊農校 ▲定州五山高普 ▲安州農校 ▲沙里院農校 ▲鎭南浦商工學校 ▲平壤崇仁商業 ▲光成高普 ▲平壤高普A、B ▲平壤農校 등십일개교 십이단체의선수 칠십여명의 장엄한입장식이 열니엇다

급천(及川)회장의개회사 삼전(森田)정구부장의인사 심판부 경긔진행주의지시가 잇섯고 전년도 우승교안주농업학교(安州農校)의 우승기 우승배반환식이잇슨후 경기가 개시되엿섯는데 삼회전이 시작되엿슬때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여 『께임』을 중지하기 멧차례엿섯스나 열피열을가지고 싸호는 원긔발자한 선수들에게는 문제도 되지안허 예정대로 결승전을맛치고 최후의 영관은 정주오산고보(定州五山高普)에게 도라가고 우승긔가 찬연히휘날니어지니 때는오후네시삼십분경이다 이겨서조코 저도못그려(?)흥미업는 참가전사들의 그씩씩한 그얼골에 어데까지나 장려하고추장하여마지안는터이며 준결승전에 빗나는 승리의 칠로 분패한오산고보와의 대전자(?)의상어의「스포츠맨쉽」이라는가 결승에서 석패한 녕변농업학교의 「스포츠스피릿」은 못할 극적장면이엇든것이다 이날의전적은 다음과갓다

▲準決勝戰▼

平壤高普(敗) 寧邊農校(勝)

(韓虎三 金子龍) 1…4 (馬尙彬 崔相鉉)

(金寶鍾 金昌濂) 2…4 (玄基善 金仁天)

(朴福錫 朴榮來) A (金熙明 張寶鍊)

五山高普(勝) 新商業(敗)

(金鍾洛 任英淳) 1…4 (張日洲 崔炳德)

(徐寅鎌 張星河) 4…1 (高永基 孫武均)

(李昌一 金龍鎬) 4…1 (金鳳根 大西博)

▲決勝戰▼

五山高普(勝) 寧邊農校(敗)

(金鍾洛 任英淳) 4…3 (馬尙彬 崔相鉉)

(徐寅鎌 張星河) 4…0 (玄基善 金仁天)

(李昌一 金龍鎬) 2…4 (金熙明 張寶鍊)

又復時間制給水

十八日부터實施

【鎭南浦】작년이래계속되는심한 한발로 진남포수원지의 물은점점감수되여 륙월십오일오전팔시현재로보면 제일수원지 제수량이 이만팔천미돌 제이수원은일방미돌로 물과십여일사용할 수밧게되지안음으로 부득히 오는십팔일부터 또다시시간급수제(時間給水制)를 실시하기로되엿다는바 일반이 물의절약과화재에일층주의하기를바란다고 하며 급수시간은다음과갓다고한다

給水時間 自午前六時 至正午十二時

斷水時間 自正午十二時 至翌日午前六時

地方人事

▲池崎圭吾氏(金泉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金泉支局來訪

▲井上章氏(金泉公普校訓導)同上

咸南僻地開發의關鍵! 端豐線不遠着工

三六〇萬圓工費로

【咸興】함남벽지대개발에 중대한 관건이되여잇스며 허천강(虛川江)수전공사의 공사재료운반하게된 단천(端川)풍산(豐山)간의 구십키로연장의 세칭단풍선(端豐線)철도는 꼿꼿내 광궤(廣軌)로 하기로되엿스며 오는오월부터 착공하려고 목하 신흥철도회사(新興鐵道會社)에서 설계에방중인데 총공비는 삼백륙십만원이라고하며 그중륙할은 국고보조를 바들것이라고한다

密陽殺人强盜 數朔만에逮捕

【密陽】지난일월륙일 밀양군밀양읍(密陽邑)장날에 동군부북면춘화리(府北面春化里)박소준(朴小俊)(三七)이가 소장에서 소판돈구십칠원을 어떤자가 몰여취도주하도록 꼿그뒤를추격하여 동군단장면미촌리(丹場面美村里)뒷산 무인지경에이르럿슬때 그자는 별안간 박소준에게덤비어 란타혼도케한후 종적을감추어버리고 박소준은 그수일만에 사망하여버리엇다함은 그당시 보도한바어니와 밀양서에서는 즉시 다수혐의자를인치하야 취조하엿스나 별소득을엇지못하여 초조한 중에 잇섯는데 동군부북면후사포리(府北面後沙浦里) 김성출(金聖出)(三二)이가 동군 상남면례림리(上南面禮林里) 김모(金某)

萬餘圓의金塊密輸 一團九名을送局

新義州檢事局으로

【新義州】십오일 신의주경찰서부터 신의주검사국에 송치된 금괴(金塊)대밀수단ー

▲義州面威化面下端一五四 木手 文信化(三二)

▲同所 女 崔承姬(二〇)

▲府內初音町 材木店 朴元順(三四)

▲安州面安州邑栗山里 金烈珠(三二)

▲平壤府衛慶里八六 金銀店 朴奎憲(二六) 以上拘束

▲安州面安州邑栗山里三二 金永煥(二六)

▲平壤府衛府里 朴善吉(三四)

▲熙川郡熙川面邑上洞 李炳濟(二六)

▲雲邑下洞 金哲模(三三) 以上不拘束

전긔 일단은 소화구년부터금년일월까지 전후 구회에이르러금괴(金塊)일관 시가 일만여원을 수출한 사실이 발각되여그간신의주서에서취조중이든것이라한다

一面一校完成

【江華】강화에 일면일교는 서도공립보통학교의 수일전 개교로 완성을 보게 되엿는바 이 서도라는곳은 도서면으로서 교통선 최서단임과 한가지로 교통에 잇서가장 불편한곳인바 이곳에는 총호수가 오백미만 인구로보아 이만사천에 불과한곳으로 공보설립은 꿈에도 생각지못한 곳이만큼 도민은 기뻐하여마지 안는다고한다

海岸埋築을契機 丘陵鑿平을陳情

釜山發展上重大影響이잇다고 府民總結束코準備

【釜山】조선제이의 상공도시요동아의관문인 부산항은 날로약진의과정을 밟고잇는데 장래발전상 중요한관계가잇는 초량정(草梁町)과 대신정(大新町)간의 언덕을 뚜르는문제에대하야 일부부민유지간에 실현방법을 조사연구하던바 때맛침 총독부에서 부산항만수축을결정하고 그제일기공사로서 초량역하(草梁驛下)해면에 잔교(棧橋)를 건설하는동시 호안(護岸)공사를하고 이여 제이긔공사로서 초량해안일대를 매축할계획을 수립하고잇슴으로 이호긔를리용하야 총독부당국에 진정하야서 전긔초량정 대신정간의 언덕을 허러서 사용하도록함이 최선의방책이라고 생각 하고서 부회의원 상공회의원기타 부유지등륙십여명의련명으로 총독부당국 각관계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준비중이라한다

文川地方에도 殺人的旱魃

【文川】함남문천은 금춘이래천후가 순조로워서 전작이나 묘의발육이 량호하야 풍작의꿈을 꾸어오든바 지난달하순부터 한발이계속되여 밧곡식은 거의말라버리고 이앙긔임에도 불구하고 물이업서 이앙은도저히 할수업는상태이므로 일반농민은 극도로 우려중이라한다

童話大會延期

【公州】충남공주예수교회청년회주최로 중부조선소년현상동화대회(懸賞童話大會)는 오는이십일오후팔시부터 당지상반정례배당에서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현상우승기(優勝旗)는당지신약방(申藥房)에서 긔증한다하며 부상도 각상점에서 긔증하엿는데 대회는 공주서 초유사로 만흔긔대를하는중 주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긔일을 오는이십칠일로 연긔하엿다한다

愛慾의彼岸 【24】

李光洙 作 / 金康穆 畫

혜련은 주상의 편지를 읽는다ー

「그 유의의 따님은 대단히현숙한 여성이니다。그러하오나이 사람은 당신이외에 아모 여성에게도 사랑을 느낄수는 업습니다。이사람은 일생에 오직한분 당신만을 사랑하다가 가랍니다。만일 당신께서 이사람의 사랑을 밧아주시면 그런고마운일은다시 업스려니와 비록당신께오서 이 사람을 밧차버리시더라도 이사람은 가슴에 당신의모양을 품고사는 날까지ー 살수잇는날까지 살아가려 하옵나다。

「이사람은 늙은부모의 외아들입니다。늙은부모는 인제 떠는일하실수도업시 쇠하섯습니다。이사람을 학교에 보내노라고밧날갈이가 잇던것도 거의다 팔아버리시고 이사람이 졸업하기만기다리고 게십니다。졸업만하면、학사만 되면무슨 조혼일이 생기려니 하고 기다리고만 계십이다。부모의 정경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튼 시골 농가시집딸과 혼인하야 늙으신부모를 공양하는것이 정당한 일인줄 아옵니다。그러하건마는이 마음은 당신을 사모하야 아모러한 수단으로도 금할수가 업사오매이사람의 고민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나、혜련아가씨、이러한 사정을웨 당신께 엿주어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하랴。이것은 과연 올치못한 일이옵니다。올치못한 일인줄 알면서도 이편지를 아니 듯이지못하는이 사람의 충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어 이 편지가 죄되지아니하게하시옵고 이편지를 밧는 이에게 유혹이나 불행이 되지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혜련은 편지를 다읽고 나서 길게한숨을 쉬엇다。

혜련은 주상이가 먼 시골사람인줄도알앗고 또 그 입고다니는 의복으로 보아서 가난한 사람인줄도 알앗다。그러나그가 남의 가정교사로 고학하는 사람인줄은 몰랏섯다。

상학종이 울엿다。혜련은 편지를 도로접어서 봉투에 너허서 어듸다가 쩌저버릴까 하다가 잠아 찟지도못하고 어듸다가 감출까 하고 망서리다가 치마허리속에 끼엇다。

혜련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주상의 편지에 관한말을 할까할까 하다가 아니하고 허리에 너흔 주상의 편지를 만져보앗다。

다음 주일날 찬양대에는 준상의 모양이 보이지아니하엿다。혜련은 가슴이 두군거림을 깨달앗다。그것은 주상의 편지에 대하여서 혜련이가 답장을 아니한까닭이엇다。

혜련은 멧번이나 답장을 쓰랴고 생각하엿다。붓을 들고 조희를 대하기도 하엿다。그러나 모르는 남자ー그러타 모르는 남자의 사랑편지에 답장을 쓴다는것이 죄인것 가티 생각혀서 하로 하로 지나는것이 고만 주일을 당하고만것이다。그뿐아니라 답장을 하자니 할말이 업섯다。거절을 하는것이라면 간단하지마는、또 승락을하는것이라도 간단하지마는 거절도 할수업고 그러타고『예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할수도업는 것이 혜련의 심경이엇다。

『그 하기 어려운 편지를 하고는 답장을 기다리다、기다리다 답장이 업스니깐 면목이 업서서』

이러케 생각하면 혜련의 마음은 견딜수업시 괴로웟다。

혜련은 합창을 할 때에도 정신이 업시 곡조를 잘못하고 례배가 끗난뒤에는 례배당에서 뛰어나와서 계동으로 향하엿다。계동 ○○번지、○○○방이라는준상의 주소는 비록 한번 본것이언마는 이저버릴수가 업섯던것이다。

재동 네거리를 지나서 계동 궁터 압까지 와서는 혜련은 혼자서 낫을 붉혓다。

『내가 어듸를 가는것이야?』하고 발을 돌려서 교동을 나려가려하엿다。

『어떠케 그이를 찾자가?』하고 혜련은 저를 책망하엿다。혜련은 다시 안국동네거리로 발을 돌렷다。그리고 혹시나 준상이가 지나가지나 아니하는가하고 행인을 주의하엿다。

今日 十七日

十七日午後八時부터 江陵邑南大川運動場에서

支局開設記念映畫大會

◇主催 朝鮮日報江陵支局

木浦

第一回南朝鮮男女籠球大會

▲時日 六月二十七、八兩日
▲場所 木浦商業學校球場
▲申請金 一組一圓式
▲申請期日 六月二十六日正午까지
◇申請所 朝鮮日報木浦支局
◇主催 朝鮮日報木浦支局
◇後援 全一商會、文友社書店、東亞婦人木浦支店

嶺美

第一回關西蹴球大會

▲時日 六月二十二日
▲場所 嶺美영담그라운드
◇主催 嶺美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嶺美支局

起死回生의靈効

神通不測의藥理作用

小兒病魔에飜弄되야時時刻刻으로顔色이납버진愛兒의斷末魔의病에는울도못울엇만큼母親은놀내는것이다

거기에對한藥은樋屋奇應丸의한알이神通靈神하게起死回生의大藥効를내여可憐한愛兒의魂을돌아오게하는感激의一場面을想像하여주시오。거기에는貴下가無條件하고이良藥을禮讚하는自讚像을볼것이다。

救急治病保健의靈効야말노

樋屋奇應丸이奇應의名稱에안부그러움을마음되는同時에愛兒를死地에서救出하야全快케하고、病兒、虛弱兒를母性의苦痛에서바더서健康線上으로보내는것이어良藥의目的이요여러분에게全幅的信賴를밧는所以로됩니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主効 경풍、시열、기절、보채고、젖을너머먹고、밤에울고、버짐나고、마마 배앓、下痢、胃腸病弱、其他弱한애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徳用包

無代進呈 育兒之友 朝鮮日報名記入申込

本舖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11-K-2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머리가몸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번히변두리를압흘때……노ー신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 七包入 三十錢 / 十三包入 五十錢 /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肥滿劑

身體瘦瘠하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藥書」로申請하면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區笄町七十一 小川藥院

角耳式 ゴムベルト
ハイフレックス チユニアー コマンター ヒーロー
在庫豐富 湯澤商店 京城府岡崎町九 電話龍山五九八番

Columbia
斷然 人氣沸騰 懸賞레코ー드 물새야웨우느냐 期限六月三十日로臨迫!! 아비럼콜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時代는變遷하엿다

(營養食으로써營養이補足되든時代는지나갓다)

最新醫學原理에符合되고 高貴藥材로研究調製한

世界的强壯劑 네오톤토닉

(適應症) 血液及病質虛弱・疲勞及虛弱一般・產婦・食慾減退・神經衰弱・肺結核・神經衰弱狀態・病後經過傳染病・小兒夜啼症・急性胃腸炎・肋膜炎・營養障碍・恢復期・腎臟病・心臟病・脈搏不整

【注意】最近에는「トニク」(英語에强壯劑란뜻)란말을붓친藥品의種類가數多함으로「ネオトントニク」愛用家諸位는注文하실時에는반드시버드나무標「ネオトントニク」라指定하시요

【無代進呈】上記人體榮養作用圖解를擴大하야 高級藝術版으로印刷한것이有하오니願하시난분에게는 請求次第無代進呈함

製造元 米國아보트製藥會社

東洋輸入總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五月京城 金融과 商況

【朝銀本店調査】

◆米=正米는 日本內地와 朝鮮米가 共히 閑散하고 實物需給關係로 人氣는 高充이오 前月末보다 二十錢高로 上旬이 끝나엿다 淸算先物은 三十圓을 突破하는 正米側의 好感을 受하야 日本內地로부터 賣買이 오든 米의 注文이 相當하얏고 六日頃부터 低調를 呈하고 漸漸 時勢로서 中旬에 入하얏는데 所持側의 先高氣分이 濃하야 再히 吹値를 待하는 模樣이며 ... 三日에 至하야 五月一日 日本內地殘存米 三四、八八七千石(比前年同期二、五三五千石減)(一)으로 發表되자 一般豫想보다 多少 豊富하얏슴으로 過高로 氣配保合이엇다 十五、六日頃부터 保合 商時 反撥되어 氣迷裡에 入하얏다 下旬은 特히 十九日以來의 內外地 冷氣는 更히 上騰을 呼하야 二十五日頃부터 賣米가 漸漸 堅調되고 底堅狀態로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正租上物 八圓五〇 八圓八〇 八圓六〇

三等合格 二九·八〇 二九·六〇 三〇·〇〇

◆栗=朝鮮內는 栗의 需給期로 實行이 閑散인데다가 米高를 反映하야 買氣旺盛하엿스나 滿洲産地는 實地로부터의 出廻가 皆無임으로 實情하고 需給을 呈하얏다 當地는 一般으로 小康을 呈하얏고 實需筋의 底値 想像되고 産況이 悲觀되어 栗의 實行은 當分間 延長될것으로 觀測되고 産地在庫減少는 共히 活況이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滿洲栗 八圓五〇 八圓六〇 九圓一

◆大豆=朝鮮內의 賣物은 地方別로 稀少하야 貿易仕入은 滿洲産地는 一般으로 本格的 取組가 업고 賣方의 保合狀態로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京城着 (平壤) 一二·三〇 一二·五〇 一二·二〇

◆小麥=朝鮮內는 端境期에 附帶하야 實物의 出廻가 皆無함으로 上旬은 各品 共히 二十錢低이엇스나 ... 中旬은 保合하고 目前의 新麥期와 一部 賣物로 ... 下旬 一、二十錢低를 示하야 閑散裡에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順山 九圓五〇 九圓三〇 九圓三〇

延長 九圓五〇 九圓五〇 九圓五〇

◆小麥=期米高와 小麥의 作況悲觀으로써 所持側은 賣惜態度이나 製粉側은 一切傍觀이엇슴과 粉子側도 新麥待氣分으로 僅히 當用買가 散見될뿐이오 거의 閑散하엿는데 實買가 업시 新麥도 天候不順으로 八、九月渡先物은 月始價보다 約二圓高인 十八圓代로 越月하얏다

◆肥料=硫安은 總解合後 豫想보다 多少減少되어 全鮮에 六五三千枚 前年에 比하야 四分增(京畿道四三千枚 前年에 比하야 八厘增)의 需要이다 京畿道의 基準은 前月中의 豫想으로 好하나 春耕期 延引으로 ... 되지 안엇스나 大體二十五、六錢 程度이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硫安 三圓八〇 三圓八〇 三圓八〇

◆鐵=鐵材料는 北鮮地方의 實需가 增加하고 新規建築의 注文 殺到로 內地 工場 ... 價額 ... 市勢 上旬 中旬 下旬

◆綿絲布、人絹=小賣側은 夏物仕入期로 閑散狀態의 實行이 ... 下旬에 入하야 閑散이 엇스나 高市勢는 各期 保合으로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A 二六圓〇〇 二六圓〇〇 二六圓〇〇

綿布 一四圓〇〇 一四圓〇〇 一四圓〇〇

◆金融=平穩推移하얏는데 京城府內組合銀行月末帳尻은 預金總額一億五、七八〇千圓、貸出總額一億六三、七六〇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一千二萬三千圓減少、貸出八百二十五萬圓減少이엇다

最低價一割以上時

米管法을 不發動

米過剩의 境遇라도

農林局側答辯

米自管法要點

米穀自治管理法을 中心으로한 米穀研究會主催의 懇談會는 全朝鮮으로부터 關係者九十名을 會하야 十五日午後五時半부터 銀行集會所에서 열고 三井幹事長의 人事가 잇슨뒤松井米倉社長을 座長으로 하고 먼저 臨席의 矢島農林局長으로부터 自治管理法이 成立되기까지의 經過와 그 內容에 對하야 一時間餘 說明이 잇고 晩餐會를 끗내인뒤 午後七時二十分에 再開하야 總督府 當局間에 質疑應答이 잇섯는데 이에 對하야 石塚穀檢所長으로부터 一一히 答辯하고 午後九時四十分 散會하엿는데 이에 對한 當局答辯의 大要는 다음과 갓다고한다

一、過剩米가 잇드래도 米價가 最低米價를 一割以上의 位置에 잇슬때는 本法은 發動치아니함

二、朝鮮의 理想持越高, 消費量의 算出方法은 아즉 未決定

三、朝鮮의 最低價格算出은 大體日本內地의 最低米價에 比하야 運賃、諸費用의 差等에 依할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四、解除數除數量의 配定은 大體本法附則의 比率(朝鮮配定은 三)에 依할것으로 생각하나 다시 實際의 情勢는 內外地의 協議에 依할것이다

五、統制組合員의 資格이 日本內地와 달른點은 舍音을 組合員으로한點이다 그러나 日本內地와 가티 五百步以上의 地主를 組合員으로할때는 매우 多數에 達할것이므로 이것을 愼重히 審議함

六、補助

(가) 總督府는 玄米石十八錢을 各統制組合에 補助하고 統制組合은 그中에서 一錢을 聯合會에 上納함 (日本內地는 업다)

(나) 設立補助 = 一組合에 對하야 四百圓가량

(다) 倉庫建設補助 = 倉庫의 建設費坪七十圓으로잡고 그八掛 即五十六圓을 補助함 (日本內地는 七掛弱)

(라) 經營補助 = 本法을 發動치 안은年에는 一石九錢 發動한年은 十八錢(日本內地는 發動한年만 十一錢)

(마) 運賃補助 = 一石五錢 (日本內地는 업다)

(바) 金利補助 = 이것은 特히 豫算에 四分七厘를 計上함 (日本內地는 四分一厘를計上)

(사) 倉敷料補助 = 長期貯藏以外의 倉庫에 保管한것에는 正租一石三十錢의 補助(日本內地는 七十二錢)

但倉敷料는 統制組合의 倉庫補助에 依하야 設立된 倉庫에 保管한것은 이것을 適用치안는다

(아) 白米格 = 一圓四錢 (日本內地는 一圓二十錢)

(자) 貸與資金 = 最低米價에 接近한 境遇를 그以下로 米價가 안떠러질것이므로 大體全部貸가 될는지 모른다

七、第二次統制의 米穀商統制組合 設置場所는 未定 (日本內地는 六大都市)

八、統制組合運用 = 朝鮮에서는 總代會를 안둘方針으로 大體總會主義로 나갈方針이나 그 詳細는 未定

九、本法實施의 境遇는 米穀自治管理法만으로 進行할것이므로 생각季節調節은 안할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米價의 重點"

朝鮮移秧事情

拂下라도 別無影響

【東京電話商通】政府所有十年產米의 最高價에 依한 拂下申請은 東京을 비롯하야 十五日大阪事務所에 京都로부터 旭四等百石의 申請이 잇섯다 그러고도 繼續될形勢이며 一面 八年產米의 買受申請도 每月二、三萬石으로 十三日까지의 累計는 四十九萬五千百五十三石六斗에 達하엿다 이대로 隨時 拂下를 繼續하면 빨리 入札拂下할 必要가 업슬것이라는데 一般이 入札拂下를 念慮警戒하는 때문에 五十萬石가량의 拂下發表가 잇슬지라도 影響이 업고 朝鮮의 移秧事情이 注目된다

春繭出廻

各道가 良質

朝鮮內春繭의 共販出廻는 全北을 비롯하야 其後全南慶南北三道

十六日도

繼續開會

地主、取引所側懇談

全朝鮮地主取引所關係者는 十五日의 米穀自治管理案에 關한 米穀研究會主催의 懇談會에 繼續하야 十六日 午前九時부터 東拓會議室에서 會合하야 總督府로부터 다시 詳細한 說明을 聽取하는同時에 質疑應答이 잇섯다고한다

重統法의 實施에

朝鮮商議가 反對

總會에 緊急提案

朝鮮商工會議所 第五回定時總會는 十六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議 第一會議室에서 開催되야 出席議員十六名 各商議職員出席 十五名 有志議員十八名 總督府로부터 穗積殖產局長 磯井商工課長 臨席 賀田會長의 同會辭後 總督告辭를 穗積殖產局長代讀 伊藤理事로부터 事務經過報告가 잇슨後 議事에 드러가 役員選任 各 常議員選擧 彬野元山會頭의 動議에 依하야 詮衡委員을 議長이 指名하기로되야 詮衡委員五名(釜山、仁川、大田、新義州各商議會頭及議長)이 詮衡한結果

▲副會頭 福島英朔(平壤)▲常議員 釜山 木浦 大邱 元山 仁川 京城 平壤

等全部重任하기로決定 다음 昭和十年度決算案承認의件과 昭和十二年度 經費豫算及 賦課徵收方法을附議 原案대로承認

昭和十二年度豫算은 一萬六百七十一圓으로 前年度보다 三千卅圓增加 다음 福島副會頭의 就任人事가잇슨다음 各商議提案의 審議에 드러가 左記 議案에 對하야 各其 提出한 商議의 議員으로부터 理由說明이 잇슨後 全部 議員會에 附托하기로되엇다

(寫眞은 總會光景)

▲緊急議案

重要產業의 統制에 關한 法律을 朝鮮에 施行하는것은 朝鮮現下의 實情에 비치어 時期尙早라고 認함으로 總督府는 措置에 關하야 善處하기를要望한다

朝鮮商議

總會開催

議案委員會附托

第五回 朝鮮商工會議所 定期總

一、滿洲國이 近近 關稅率의 根本改訂을 行하는데 對하야 朝鮮產業의 保護發達과 朝鮮滿洲貿易의 助長發展에 支障이 업도록 總督府에 極力善處를 要望함 (元山商議提出)

二、朝鮮產業의 現勢及 將來에 鑑하야 適當한 地에 鑛業專門學校의 設置를 要望함 (新義州商議提出)

三、海上交通의 安全을 期하기 爲하야 速히 朝鮮에 氣象觀測施設을 擴張整備하기를 要望함(群山商議提出)

四、工藝指導所設置하기를 要望함(京城、大邱商議提出)

五、港灣의 海陸連絡施設의 完備를 要望함(木浦商議提出)

六、對中貿易의 促進과 助長을 圖하기 爲하야 北中國輸要地에 專任貿易關係機關의 設置를 要望함(仁川商議提出)

七、中小商工業의 振興에 關하야 必要한 施設實行을 當局에 要望함(咸興商議提出)

八、鎭南浦鐵道의 開通에 伴하야 鎭南浦第三期築港의 急速實施를要望함(鎭南浦商議提出)

九、製鐵國策確立을 爲하야 速히 茂山鐵鑛을 開發하야 그 製鐵所를 北朝鮮에 設置하기를 要望함(淸津商議提出)

一〇、第三種所得課稅方法을 改訂하기를 稅務當局에 要望함 (全州商議提出)

一一、朝鮮編入地에 工業學校를 設置하기를要望함(釜山商議提出)

午後는委員會

朝鮮商議定期總會는 午後一時半부터 委員會를열고 午前中附託의 各商議提案의 審議를 하고 本會議를 再開委員會審議의 提案全部를 可決하고 午後四時閉會하엿다

京城商議役員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九日午後三時부터 役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에 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엇다

一、昭和十錢度事業報告及 收支決算承認의件

一、京城商工聯合會에 補助의件

一、市內各町會聯販에 關한 座談會開催의件

一、第三回商業實務員學力檢定試驗實施에 關한件

麥類移入量激增

米價의 昂騰으로

代用食糧의 增加로

大麥及裸麥의 朝鮮內消費는 一兩年來激增을 示하얏는데 今年은 麥類의 減收와 米價高로 期初以來 移入高가 膨脹되어 五月末까지에 移入九十三萬三千九百六十擔으로 價格이 實로六百十七萬圓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면 二百十萬圓의 入增이다 代用食으로서의 粟의 地位에 代할 重要性을 加하얏는데 五月末까지의 移入을 比較하면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擔、圓)

	數量	價格
昭和九年	五九八、〇〇〇	四、〇九〇、七〇〇
同十年	五七六、〇〇〇	三、九〇〇、〇〇〇
同十一年	九三三、九六〇	六、一七〇、〇〇〇

九年에 比하면 今年의 移入量은 實로 百二十二倍에 相當하다한다

京春株數配定

京春鐵道의 公募三萬株에 對한 應募申請은 結局 十七萬餘株에 達하고 十五日 그配定을 다음과가티 決定하고 今明中 配定通知를 發키로 되엇다

申 請	配 定
一〇〇	二〇
二〇〇	三〇
三〇〇	五〇
四〇〇	六〇
五〇〇	七〇
一、〇〇〇	一〇〇
二、〇〇〇	二〇〇
三、〇〇〇	三〇〇
五、〇〇〇	四五〇
一〇、〇〇〇	六〇〇

撥金은 十八日로부터 返還할터이라고

非合運送計算

丸計役員會召集

丸計丸二兩會社合同問題에 對하야 丸計側으로서 京元線、湖南線業者는 新會社發起人을 承認치안코 十五日 丸計會社에 對하야 臨時總會召集을 要求하얏슴으로 會社當局은 十六日에 役員會를 召集한바 廿日 役員會에서 臨時總會開催與否를 決定하리라한다

南朝鮮本格的

南朝鮮地方早繭의 出廻로 朝鮮內의 春繭은 去年보다 本格的出廻에 入하얏는데 今年의 繭質은 期初低溫으로 相當히 憂慮되엇슴에 不拘코 上簇期에 入한後의 高溫連續으로 相當히 良質의 繭을 出하야 出廻期에 入하야 絲價의 騰貴로 上簇期에 好天氣가 繼續되어 各地方이 모두 良質이라한다

忠北은 十七日은 京畿 二十日은 全南北 黃海 二十三日은 咸南 江原 二十五日은 咸北의 順으로 出廻될模樣인데 十五日은 早鎭도 出廻되어 三十五掛五 最高三圓八十五錢이라는 近年의 記錄的高價를 出하야 好況으로 春繭은 養蠶家에게 好績을 與한 狀態이다

前後를 下値로 올느는 强調로서 慶南의 密陽 晉州와 如함은 掛目 十割三分가량의 高價를 보이엇다

大邱繭市場

存續決定?

今年一年間을

京城의 繭自由市場은 京畿道에서 閉鎖키로 決定하야 大邱市場도 閉鎖케되지 안흘가 注目되든바 同地는 繭出廻上의 쌍혼곳의 關係가 잇고 또 取引量 其他도 相當한 數量에 達하엿스므로 影響을 念慮하야 大體 암흐로 一年間은 存續케하거로 決定한모양이라고한다

取引停止

(六月十六日)▲十六日

建築請負 京城府林町一九〇番地 宮本良夫 ▲米穀薪炭 京城府崇仁町八四番地 大成商會 郭潤德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六一番地 相信鑛油商會 趙熙文

商況 【十六日】

株式 下落後에 下澁

前場은 諸株一齊下落의 不勢를 示하얏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九十錢低인 百卅二圓七十錢、大新七十二圓七十錢、日產八十錢低인 七十一圓丁、鐘新五十錢低인 百五十七圓五十錢、朝新廿八圓卅錢에 各大引되고 日魯七十圓七十錢이 잇섯다

▲朝新 一六〇(寄) 一五八(引)

▲東新 一三〇(寄) 一〇 一三一·二 一一〇 一一四(引)

前場下放 倫敦金塊低로 今後의 ...

後場底堅 後場도 下澁

景氣觀도 相異

一般은 好景氣豫想

朝鮮商議 第五回 總會 開幕에 지금까지의 決議案이 몃개나 實現되엇던고 當局의 考慮中이란 소리 들은것은 어데쯤 議題삼지안는것이 찾아리 威이지안흘가?

東新이 今月四日上放以來 百三十三圓臺를 여러번 보이엇스나 低價에는 買直物이 잇고 市況一般에 利喰外는 實込모양이 업서 섯는데 今前場은 寄付가 四圓臺로 떨어지고 上物로보이왓던 百三十三圓臺가 下放大引이엿다 이로써 惡化의 第一步인지 最後의 突込인지는 斷定할 수업스나 株界에서는 時局은 濃厚한데 對한 一般世間의 觀測은 好景氣豫想이다 即 政府가 大豫算을 放出할 것이니 그덕이 누구손에든지 갈 것이라 景氣가 不良해질까닭이 업고 增稅해도 景氣가 좋아지면 問題 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株界에서 너무 不安과 지나친 觀測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잇다

金塊低로 惡化?

東新日產一齊不勢

倫敦金塊는 十六磅十六志五로 近年稀有의 低價인 것으로 日產은 七十圓臺를 떠러지고 東新도 四日以來 百三十三圓臺를 堅持하던 東新도 永保合을 나라내든 東新은 下值 百二十三圓五十錢에 떨어지고 後場에는 한때 十二圓臺가 下分으로 不勢를 보인 한편 日產은 七十圓臺를 버리고 三日以降 七十圓五十錢臺를 堅持하다가 今前場 三十一圓 九十錢 低値大引으로 下值二十三圓臺 떨어진 것이니 商氣에 三十一圓臺 떨어지리라 本年 三十一圓丁에 크게 하락한 것이 잇다

東新 六十錢高인 百三十三圓二十錢、大新七十錢高인 百二十三圓 七十錢、鐘新三十錢高인 百 大十圓八十錢、朝新十錢高인 二十八圓四十錢에 各大引

市場大感

◆……今朝東新은 百三十四圓臺로 또빠빠하야 下澁底堅 米가 果然 吟味할만하야던이 한걸 四日以來堅持를 百三十三圓臺가 깨어저 二圓九十錢(當地二圓七十錢)의 低價로 前引▲倫敦金塊 近年稀有의 低價로 因한 인지 日產低가 東新에 移한것인가?▲雜株는 一齊低迷反落、東新이 結局이에 追伴하다면 軟派가 期하는 百二十五、七圓이 먼저 나오게되나?▲某通信 十八日까지 大引價(東西共)로 百三十圓五十錢을 下拔키던지 上下間大分岐는 업는것으로 보아 동이 若何?

◆米……昨日朝取仁川支店에서 는 一日賣買高가 二十六萬餘石 이라하야 當所創立以來의 盛事 ▲그런데 某取引店의 當日總賣買高의 約三分의 一을 占領하였다고 同店의 活躍은 大肚觀 ▲數段瓦落을 告할뜻하든 常地市勢는 今朝東阪各地의 反落도 不拘하고 依然反撥、此는 天氣의 所使엇다 ▲아프로 一週日以內에 降雨가 업다면 可謂無米의 狀態를 呈할 모양이니 피땀흘리는 農民으로서仰天痛哭할일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四五五〇 ▲人造肥料 五五七〇 ▲東滿 二九〇 ▲帝麻新 二三〇〇 ▲富士木材 二二〇 ▲大同電力新

低落은 一時的

又復高價豫想

昨日東阪其他市場의 反落은 最爲公定價格에 接近한 市勢이나 반치 買方으로서의 警戒와 又는 小口側의 利喰賣에 基因되엇스며 當地는 舊來割高인 關係上低落의 度가 又一層 深入되엇다 그러나 正米의 市勢는 諸算의 反落에 反하야 오히려 十錢高를 示하엿슨즉 此實勢를 無視할수 업을것이오 또는 換近早天으로 人氣는 又復緩轉의 氣勢를 보이고 잇다 丁으로 落少하고도 오히려 餘勢는 鮮에 微雨만 해안心할수 업는 그 北朝鮮의 枯死의 狀態에 빠저잇슨즉 南의 地方은 一滴의 甘雨가 업서 畓에 雨量이 업고 朝鮮의 米倉인 中部以南 義州를 除한 外에는 이러한 如于 小雨가 잇섯스나 中江鎭新 와 果然 朝鮮의 天候는 北朝鮮의 에 그만한 하늘도 업지 안커니와 에對하야 四十丁이나 反落하엿슴으로 그 地仕手의 關係로 阪地二十丁低落을 始하엿다 要하면 昨日의 當로 우뚝 솟아 人氣는 ...

旱魃買氣旺盛

阪地低도 不拘

昨後場 阪止三十四圓三十九錢인 三十丁反落과 相伴하야 三十一圓 三十丁反落으로 三十九錢 三十丁反落이 止한 當地市場은 朝鮮中部以南 의 依然 旱天으로 唯一한 輸材로 하야 今朝阪의 三丁反落의 報를 傳함에도 少毫도 感應이 업시 三十二圓四十四錢 三十丁高로 寄附한 後 (以下略)

後場伸惱

後場은 三十二高로 始場後 五節 十錢 三本同價로 伸惱이고 四十九錢으로 四十六錢에 止場하다

期米 反高後에 伸惱

前場暴騰

昨後場 阪地三十二圓三十九錢止와 共히 三十二圓 三十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三十四錢인 三十丁反落을 傳하고도 十三丁反高로 三十二圓 四十四錢 人氣旺盛하야 十二丁反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二節三十一錢으로 入第四十五錢까지 釣上하엿다가 四十二錢으로 終始하엿다 三錢에 止場을 보합하야 五十錢까지 四十二錢으로 止場하엿다

各地正米

京城少落

不實 不賣의 無凡狀態로 推移되어 十錢低인 ⑧三等 三十一圓九十錢 四等 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 二十三圓五十錢

仁川少綏

正租는 極히 剩高를 繼續하나 日本內地와의 採算不合으로 買氣不添하고 期米의 引緩으로 十錢低唱인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五錢

釜山保合

實物薄과 買方의 總傍觀人氣로 市況은 極히

各地正米

買方 地場强氣、潮先、海據 讚方 東京側乘換地場朝鮮側西側 上의 高價는 抑止되리라고보고 잇다 府在米臺際發會傾向이 잇스나 그以는 讃岐旭三等을 上廻할時는 政府로의 最高米價中 最低位에잇 渡供用可能인것은 堂高入限換算 九錢은 目前天井으로 생각하야 受 갓다 먼저 번高價 三十四圓五十 從來의 强材料를 再然檢討하고 어 反落에 轉키에 至하야 人氣는 로부터 流布된 拂下說로 尋破되 可避로 보이는 市勢도 昨日東京으 全國的으로 最高米價突破도 不 受者의 實行이 一息氣味이엇다 뒤이라 高價에는 買物不添이오 米의 定期高로 相當히 買付된 錢高로 當用側에 賣하얏스나 日 受米◎旭三等이 當限價보다 十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商通】 地場의 潮先의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高價가 잇슬것을 豫想하지 안흘 수 업다果如何? 的일것이오 結局은 又復數段의 三調係로 보아서 低落은 一時 을 못할수엇이 되다 그러한 모 十二、三十耗의 時雨에는 業無 景因을 判定하게될것임으로 如 의 成長狀態如何에 依하야 비로소 豫測할수잇다 그림으로 植付後 의 支障이 업지 안을것을 足치 의 義務이 不良한다할 植付限 二、三日頃에 完了하다할지라도 植付 時代氣候의 狀態와 早晩畓 이 關係는 植付時期의 ...

大邱少弱

取引이 依히 閑散인데다가 期米 의 引緩을 多하야 少弱 即이어 七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 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

群山下放

實行不引立과 期米의 廳勢一息으로 氣配三十錢下放이나 市場賣物拂底로 은 底堅하얏다 姜夕三等三十二 圓二十錢 四等三十二圓丁 一等白米十三圓八十五錢

安承變化로

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 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二錢

米 株
仁川 益 京城
康益東商店
金益證券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二·四四	高一三
大阪期米 先限	三四·三四	低二二
東京正米 旭三等	一四·一六	一低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價

	一個月貸	一個月貸
一流	七分·五厘	七分·二厘
二流	九分	八分·五厘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鐘新	二六·九〇	三〇高
東新	一三三·二〇	六〇低
日產	七〇·四〇	八〇低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一九〇·五〇	一〇高
大阪綿花	六五·六〇	三〇低
大阪人絹	一五〇·一〇	二三低
大阪砂糖	二五·二〇	二低
日本Q·A·P 現	一五·五〇	不變

◆期米 寄附 大引

朝取	一八五〇 ▲	一八〇 ▲
帝國火藥	一四七〇	一不二興業
二八〇〇	(取引高一八〇〇枚)	

週 十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五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十五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十六日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系布市勢◆ 十六日

[illegible]

◆京城紹◆

[illegible]

◆鐵油價◆

[illegible]

◆鍋粕布價◆

[illegible]

◆지카豆期◆ 十五日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合計 一六·九〇 累計 一〇五·九〇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新取短期◆ 十六日

[illegible]

◆東定代引日歩◆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二·七〇〇中 三·七〇〇 先 一四·〇〇〇石

合計 一九·二〇〇石

本期總計 一九二·九〇〇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金石福土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黃金町三丁目
長本局四八五六九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日本內地玄米	八二二	一二七
日本內地白米	四八一	一〇七
朝鮮玄米	六〇二	九二
朝鮮白米	一七九五	二
台灣	五八	九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六日

◆大阪綿系◆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十五日

[illegible]